2009 03.18 No.03(통권 104호)
http://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Weekly 공감

특 집 대역사 첫발 디딘 경인운하

정책 블로거들이 떴다

환태평양 3개국 순방 성과



희망 쏘아 올린 작은 공

힘내라 대한민국!

상상을 펼쳐라! 경인운하!



새로운 생각의 물길이 열리면 경인운하 중심시대가 열립니다

경인운하는 물길만을 뚫는 운하가 아닙니다. 경인운하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도전입니다.
이제, 미래를 향한 경인운하에 여러분의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한강과 서해의 아름다운 만남 경인운하!



수송체계 개선과 운송비용 절감으로 신물류 패러다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인천의 랜드마크 조성 및 한강 르네상스로 문화 · 관광 · 레저의 세계적 명소로 발전!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방지는 물론 인간과 자연중심의 친수공간확보까지!



고용효과 2만5천명, 생산유발효과 약3조원, 다양한 복합사업으로 나라경제 활성화!

국토해양부 K water

경인운하는 미래의 자랑이다

진형인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건설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10여 년간 논란을 끌어온 경인운하가 본격적인 건설단계에 들어섰다. 운하 건설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없지 않지만, 이제는 어떻게 잘 건설하느냐가 과제인 것 같다. 이들 다양한 시각의 논리도 잘 검토해 21세기의 성공적인 운하건설 사례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경인운하는 사실 운하라는 표현 자체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 짧은 거리의 수로 건설에서 출발했다. 굴포천 유역의 막대한 연례 홍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홍수를 서해로 배제하는 14km의 굴포천 방수로를 계획했고, 이를 한강 쪽으로 3.8km 더 연장해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물길을 만들기로 했다. 본연의 목적인 홍수 피해 해소 외에도 친수공간 조성, 해양관광, 물류 원활화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 성공도를 검토할 수 있다. 하나는 그 시설물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장래 변화다. 다른 하나는 시설물 자체의 활용 가능성 여부다.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경인운하는 주변 지역의 환경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수로 주변 주민들의 친수공간 설치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데다, 인천, 경기, 서울이 협력해 새로운 물길을 활용하는 한강르네상스 등 해양관광의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운하 연관 지역인 수도권 서북부는 정치적·군사적 이유, 해양과 항만에의 불편한 접근성으로 발전이 뒤처졌지만 현재 이곳은 글로벌 기업의 유치 등으로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 앞으로 남북교류가 증대되면 이곳은 성장의 활기를 더 많이 띠게 될 것이다.

경인운하는 이처럼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 서북부가 인천과 김포 터미널을 활용해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다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인천의 대(對)중국 해운 교류와 더불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경제 교류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다.

둘째는 경인운하 시설물의 활용도다. 가장 중요한 통행 선박 건조와 활용성에 대해서는 조선공학자들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의 제시가 이뤄지겠지만,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강-바다(R/S) 선박이 중국 내륙의 대도시로 바로 갈 수 있는 운송로가 열린다면 경인운하는 국제적인 물류시설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경인운하는 그동안 시설물 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활성화되지 못한 연안 운송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상당량의 온실가스 절감 효과도 가져와 녹색성장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한편 경인운하를 건설할 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먼저 인천터미널의 항로 확보와 준설, 운하 내에서의 양방향 동시 통행 확보, 화물운송과 관광선박 운행의 조화, 그리고 운하의 친수공간 시설물 활용을 위한 선착장과 접근로의 설치 등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사전 모의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인운하는 서해와 한강을 잇는 물길을 열어 21세기에 요구되는 친수공간의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물류, 문화, 관광, 레저 등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여러 각도에서 펼쳐진 다양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잘 건설한다면 국제적으로 자랑스러운 시설물이 될 것이다. G



인천물류연구회장
항만친수공간포럼 회장

CONTENTS

Weekly _ 2009. 3. 18 _ No.3(통권 104호)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52


56


54

발행일 2009.3.1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주)삼화인쇄 **배포문의** 02-3704-9992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알림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산불 신고 | 가까운 시 · 군 · 구 산림 부서나 119, 경찰관서
산불조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숲 –
우리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만이 푸른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가
무서운 재앙을 불러옵니다
해마다 논 · 밭두렁을 태우다가
9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는 논 · 밭 태우기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재앙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의 소중한 숲
관심과 실천만으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논 · 밭두렁 태우기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100m
마을공동소각
|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소각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마을 공동소각 |
새해 농사를 위한 소각은 바람이 없는 날
오전에 마을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 산불! 신고가 우선 |
논 · 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졌을 때는
즉시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 〈Weekly 공감〉 102호(2009년 3월 4일자) 내용 중 독자들이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기사는 '대통령 내조 1년 맞은 김윤옥 여사 인터뷰'였습니다. 김 여사를 격려하는 댓글 중 한 편을 뽑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사랑의 힘으로 내조를 잘 하셨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내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나갑시다. 파이팅!"_ 조형래



●● 〈Weekly 공감〉 103호(2009년 3월 11일자)에서는 '홈런왕 김태균, 선행도 만루 홈런' 기사가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3월 5일 도쿄에서 개막한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 1라운드에서 4번 타자 김태균 선수가 맹활약한 것과 맞물려 그의 선행 기사에 대한 댓글도 '줄안타'처럼 이어졌습니다. 김 선수가 미국 샌디에이고라운드에서도 홈런 날리기를 기원하며 독자 댓글을 띄웁니다.

"오오 김태균 오오~ 마음 씀씀이까지 완전 훈남이네요. 운동 하나만 하기에도 선수로서는 벅찰 텐데, 틈틈이 자원봉사까지 하다니 대단하네요."_ 룰루랄라♬



경제도 야구처럼 체력 안배 필요하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 일본과의 1차전에서 한국이 무성의하게 콜드게임으로 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3류 평론가들이나 하는 주장이다. 만약 체면 때문에 주전투수들을 총동원했다면 어느 정도 점수차를 줄일 수는 있었겠지만 다음날 중국전이나 일본전에서 투수부족으로 고전을 했을 것은 뻔하다. 주전투수를 아꼈기 때문에 결국 1라운드에서 1위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다.

경제도 야구와 비슷하다. 투수들 체력 안배를 하는 것처럼 경제도 체력 안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가와 환율의 수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한국이 떨어지는 만큼 미국이나 일본도 떨어진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이다. 주가라는 것은 이슈가 생기면 오르게 되어 있다. 결국 이슈라는 것은 정책이고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은 국가경제가 살아야 조달할 수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뒷받침에 불과할 뿐이다. 기업에 투자를 요구하기 전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하기 때문이다. hrtrhhrtrh(행도중단)

가로등과 보안등을 태양열과 풍력으로 밝히자

저는 현 국가 에너지 정책(Green Energy)에 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탄소배출 없이 친환경적이고, 무엇보다 기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더불어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로등과 보안등은 대부분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공급받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료를 내고 쓰는 실정입니다. 이 전기공급 방식을 바꿔 가로등과 보안등 하나하나에 태양열 집열판이나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자체 생산 조달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낮에는 전력을 모으고 밤에만 사용하므로 전기는 충분히 조달될 것이고, 전구 모양과 색깔도 여러 가지로 변화를 주어 아름답고 운치 있는 도시 야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좀 들겠지만 3, 4년이면 그 비용이 상쇄될 것이고, 또한 가로수 나뭇가지가 방해되면 해마다 여름철이 오기 전인 5, 6월에 가지치기를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방안을 검토하시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쾌적한 국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kso611(김성옥)

Weekly 공감 (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일자리 창출, 내수 부양 위해 '슈퍼 추경' 한시가 급하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의 암운이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통해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 실물경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내리막을 걷고 있다.

경제 예측기관들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물경제 위축은 곧바로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가인원이 지난해 12월에는 −12만명으로 추락하더니 올해 1월에는 −10만3000명으로 회생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위축은 당장 내수를 짓누르고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려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쏟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새벽 인력시장을 찾는가 하면 정종택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가뭄지역을 방문해 '물 대책'과 4대강 살리기 묘안을 구상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30조원 안팎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경제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자는 뜻에서 나온 긴급처방이다. 문제는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것. 30조원대 추경예산 상당수가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무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과 고용유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추경 16조~40조원이면 성장률 2%P 상승

정부가 적극적인 추경 편성과 지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계, 학계, 경제계 등 전 분야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성장률을 1%포인트 올리기 위해 재정지출을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입하면 약 8조~10조원, 전 국민 대상의 소비 진작책 등을 포함하면 8조~2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추경예산 16


연합

이만의 환경부 장관(왼쪽)이 3월 9일 가뭄으로 일부 바닥이 드러난 안동 임하댐을 방문해 현황을 듣고 있다.



동아DB

정부의 추경예산은 서민 민생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쿠폰 · 현금 지급사업에도 쓰일 전망이다.

조~40조원이 있으면 성장률을 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대규모 추경의 용처다. 여야 모두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정치적 논리에서 추경의 내용과 편성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지금 여야가 할 일은 정치논리에 따라 추경을 흥정할 것이 아니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투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시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해 운용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여야가 할 일은 정치논리에 따라 추경을 흥정할 것이 아니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투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시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해 운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와 관련해 "일자리와 민생에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 사업에 두고 있다.

다음으로 저소득 및 서민 민생 안정을 위한 쿠폰 및 현금 지급 사업이다. 이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제시한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구조조정 지원 등의 3대 원칙과 부합한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대를 위해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군대 막사의 현대화 등 관급 공사를 늘리는 방안도 들어 있다.

또한 추경예산을 집행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8개 부처가 관할하는 35개 사업이 포함된다. 아이 · 노인 돌보미, 산모신생아 · 가사간병 도우미, 숲 가꾸기, 예술강사 등의 일자리가 있으며 매월 100만원 안팎의 급여를 준다. 하지만 정부는 동네 경기 활성화보다는 4대강 살리기 등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해 국도유지보수, 자전거도로 설치 등 국도변 보행환경 개선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SOC 투자 크게 늘리고 빈곤층에 현금 지원도 검토

이는 SOC 투자의 고용유발 효과가 단기간에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동연관효과 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이 여타 산업보다 가장 높은 고용계수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건설업은 고용효과가 크다는 장점 이외에도 직접적인 공공발주를 통한 정부 개입도 가능하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 적절한 예산 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사업자, 휴 · 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현금 제공안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휴 · 폐업 자영업자나 실직한 임시 · 일용직 가구의 가구원이 관련 일자리에 지원할 경우 채용에 우선권을 줘 가구 구성원 중 최소한 1명은 소득이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줄 방침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예산안도 편성됐다. 특히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부출자 금융기관들에 대한 추가 출연금이 포함됐다. 이들 금융기관이 수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G

글 · 이규성 아시아경제 경제부 기자



정부는 3월 12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생계 곤란 서민에 6조원 푼다

실직, 휴폐업 120만 가구 대상 6개월 동안 현금·상품권 지급

실직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120만 가구, 260만명에게 6개월간 생계비나 공공근로 임금 형식으로 현금이나 상품권이 지급되며 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예산이 2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이 5000억원 추가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금리가 0.3~0.8% 포인트 추가 인하되며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5%에서 2%로 낮아진다.

정부는 3월 1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와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총 6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경기침체로 서민·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 여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생계·주거·교육비 문제를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대책에 따르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120만 가구(260만명)에게 근로능력, 재산상태 등을 감안한 맞춤형 생계가 지원된다.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50만 가구)에게는 6개월간 평균 2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계층(40만 가구)에게는 공공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의 절반은 현금으로, 절반은 재래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재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산 보유자(20만 가구)에게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 융자해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 대상자에 10만 가구가 추가돼 해당 복지예산이 지원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예산 2000억원 증액

경기침체로 체불근로자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예산이 2000억원 증액(당초 300억원→추경 반영 후 2300억원)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경영안정자금 예산이 5000억원 늘어난다(당초 5000억원→추경반영 후 1조원).

국가장학금 지급,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등을 통해 교육비 절감도 추진된다. 이미 기초수급자 무상장학금 기간을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대출이자도 4%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하는 등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었으나, 이번 대책에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0.3~0.8%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월에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 국가장학기금을 확충하고, 2학기 중 신규로 1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도 1만5000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과 시도교육청 재원에서 740억원이 지원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4.5%에서 2%로 인하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1년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추가 인하(2%→1%)된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1%포인트 인하(5%→4%)된다.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은 최소한의 생계·주거·교육비 문제를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 2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되며,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물량도 500가구 확대(7000가구→7500가구)된다.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우선 입주 가능한 물량 중 500가구가 시범 공급되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가구가 추가 지원된다.

이밖에 무료급식단체에 쌀(구곡) 1만5000t(22만명 수혜)이 무상공급되며 기초수급자에 대한 쌀 할인폭이 50%에서 70%로 확대(1만6600원→1만원/20kg)된다. 아울러 실직, 퇴직 때 동일직장 근무기간(2년→1년), 수혜기간(6개월→1년)에 대한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이 완화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보험료 일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G

글 ·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제공

부문별 서민생활 안정지원효과

	지원효과
계	6조989억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	5조7376억원
1) 생계 지원	5조2310억원
2) 교육 지원	2742억원
3) 주거 지원	2324억원
제도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안정	3613억원

문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02-2150-2771, 복지예산과 02-2150-7211

신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1]	지원내용	소요예산	지급형태
한시생계 구호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근로 무능력 50만 가구(110만명)	평균 20만원, 6개월	5385억원(국고 4181억원)	현금
희망근로 프로젝트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 근로 능력 40만 가구(86만명)	월 83만명, 6개월	2조6000억원(국고 2조원)	현금 50%, 전통시장 상품권 등 50%
자산담보부 융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일정 재산[2] 보유 20만 가구(44만명)	평균 500만원[3] (상한 1000만원)	1300억원(국고) *이자차액보전 등	대출

1 상기 지원 대상에서 기초생보자는 제외
2 재산 8500만원~2억원
3 융자조건 : 3%, 2년 거치 5년 상환(총융자 1조원)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말하는 환율대책

“우리나라 부채 지불능력 충분 환율 불안 오래 안 갈 것”

최근 외환시장 분위기가 심상찮다. 3월 위기설이 대두되면서 국민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야기는 다르다.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은 한국정책방송 KTV에 출연해 외환시장 진단 및 정부의 환율대책에 대해 자신있게 설명했다.



허경욱 차관은 “지금의 환율 불안정은 과도한 불안심리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나라의 부채 지불 능력은 충분하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담에 임했다.

달러 가치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세계 6대 외환보유국일 만큼 경제 규모도 큰데, 왜 이렇게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일까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위험할 것이라는 과도한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리적 불안이 원화 가치 급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충분한 상황인가요. 정부 발표와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다릅니다. 단기외채 등 민감한 지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단기외채는 1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유동외채를 합하면 1900억 달러입니다. 그중 400억 달러 정도는 회계학적으로는 부채지만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 나면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20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400억 달러를 갚아야 하는 부채로 보기 때문에 국민이 더욱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시각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울 주재 외신기자들에겐 이 400억 달러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본사에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불신도 심각한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 투자자의 경우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합니다. 즉, 큰 지표는 보지만 세부적인 지표를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디폴트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것 역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외신이 충분히 알지 못하면 우리 정부는 그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신에 기고를 하고, 외신 기자들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경우 영국 본사에 직접 찾아갈 계획입니다.

동유럽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동유럽발(發) 경제위기로 우리 외환시장이 직격탄을 맞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유럽발 경제위기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동유럽에 빌려준 돈은 20억 달러입니다. 미미한 수준이죠. 실제로 시장이 걱정하는 점은, 유럽계 은행들이 동유럽에 돈을 많이 빌려줘 동유럽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 우리나라에 빌려준 돈을 차입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걱정할 바 아닙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럽계 자본 가운데 절반 정도는 영국계입니다. 영국계 자본은 동유럽에 빌려준 돈이 별로 없으며, 나머지 절반도 동유럽에 물려 있는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 은행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동유럽 상황이 최악에 달해도 우리나라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최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쏠림이나 투기 현상이 있을 때 언제라도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환시장의 인위적 개입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환율시장은 주식시장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오버슈팅(과민반응)과 쏠림 현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정부가 과감히 개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차선책인 셈입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인정했으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런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내의 달러 실수요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이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러 실수요는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입이 모두 줄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달러 실수요의 증감 자체가 환율의 현 수준을 설명하는 큰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환율 상황을 보면 10여 년 전의 외환위기 때보다 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시와 지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원인과 현황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원인은 두 시기가 전혀 다릅니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은 400%였고, 은행들도 매우 취약했습니다. 즉, 환율이 불안해질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이 100% 수준입니다. 은행 역시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2%로 매우 건전합니다. 단지 미국의 경제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 수요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현황 및 대응 측면에서도 두 시기는 전혀 다릅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외환보유고가 매우 적었습니다. 1997년 말 외환보유고는 80억 달러가 조금 넘었고, 단기외채는 그보다 700%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비중이 100%도 안 됩니다. 시장이 요동치니 국민은 당시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또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도 있습니다.

KTV에 출연해 정부의 환율대책을 설명하고 있는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엔화 대비 환율은 더욱 불안합니다. 엔고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고,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엔화가 원화에 대해서만 높은 건 아닙니다. 요즘 엔화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엔화가 강해진 이유를 흔히 '엔캐리 현상'으로 설명하는데, 엔화가 쌀 때 빌려서 투자한 자금이 일본 내로 회수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화는 반대로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이 겹치다 보니 엔고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엔화 자본을 빌린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율은 '양날의 칼'입니다. 엔화가 강하다 보니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주력 사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합니다. 또 대일 적자의 상당 부분을 부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일본의 부품사를 한국에 유치하거나, 국내 부품사를 육성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시기입니다.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즉,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국내 경기를 보자면, 환율 불안으로 물가 상승과 소비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나아질 때까지 상황이 좋아지긴 어려울까요.

먼저 환율 불안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달 말부터 일반 은행들이 본격적인 중·장기 차입을 시작합니다. 또 무역수지도 좋습니다. 2월 무역흑자가 33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40억 달러 정도입니다. 3, 4월에도 흑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줄면 물가는 떨어집니다. 즉, 최근 물가가 다소 불안했지만 연간 물가는 2% 후반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여러 소비 진작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하면 대외 상황이 나아지기 전이라도 국내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외환시장 안정과 경제성장률 상승을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은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 단기차입을 해결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이달 말부터 은행들이 중·장기 차입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차입을 해결하면 외환시장은 빨리 안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 성격은 미국이나 유럽과 다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원인이 내부에 있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기업, 은행 모두 건전합니다. 또 외환위기를 이겨낸 경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를 어느 나라보다 빨리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국민 모두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정부를 믿고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G

정리 · 이지은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경협·녹색공감… 환태평양 외교지평 넓혔다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 환태평양 3개국 방문은 도전이자 알찬 열매를 거둔 정상외교의 전형이었다. 가깝지만 가깝지 않고,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3개국과의 '거리 좁히기' 여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다소 추상적이었던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광활한 호주대륙 등에서 '미래 보고(寶庫)'를 캐는 자원외교를 튼실하게 챙김으로써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협 벨트를 확장했다. 그동안 4강 외교의 성과를 토대로 외교 스펙트럼을 아시아와 남태평양으로까지 넓히는 짭짤한 성적표도 올렸다. 무엇보다도 미래성장과 직결된 강력한 녹색성장 파트너십을 수확한 것이 눈에 띈다. '3색(色) 성과'인 셈이다.


동아DB


동아DB

FTA 본격화 등 자원외교 통한 '찰떡 경협' 수확

이명박 대통령은 환태평양 3국 순방에서 자원외교를 통한 경협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광활한 대륙 호주를 비롯해 아세안(ASEAN)의 맹주이자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돈독히 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나라와의 경협은 구체성이 보장되면서 정상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이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호주, 뉴질랜드와 FTA 협상 개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본격적인 한·아세안 경협 시대 개막을 의미한다. 지난해 남미 순방을 통해 거둔 자원외교 이상의 수확물을 얻었다는 평가다.

환태평양 경협벨트 진화

환태평양 선진국인 호주와 FTA를 진전시킨 것은 최대 성과다. 한국과 호주는 오는 5월 FTA 1차 협상을 개최키로 했다. 호주와의 FTA 협상이 본격화하면 1년 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 우호적인 뉴질랜드와의 'FTA 시너지'도 적잖게 기대된다. 오세아니아 두 나라 시장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호주의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한국과 멕시코에 이어 세계 15위다. 윈윈(win-win)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해 공산품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FTA를 통해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분야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우리의 주요 광물수입지인 호주와 맺을 FTA는 한국으로선 이익이 적지 않다. 한·호주 경협의 진화로까지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지난해 호주와의 교역 규모는 231억700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2배로 급성장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3월 5일 호주 케빈 러드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위). 3월 5일 호주 캔버라 시내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이명박 대통령이 참전용사들과 인사하던 중 미망인인 주디스 영 씨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이명박 대통령이 3월 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던클럽에서 열린 한 · 뉴질랜드 비즈니스포럼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국 순방을 통해 경협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서 무시하지 못할 시장으로 떠올랐다. 호주와의 경협 확대는 양국 교역 · 투자 확대 및 인적 교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호주의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및 고속철도 도입에 한국 기업 참여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기업으로선 매우 반가운 일이다.

또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 개막으로 이 대통령의 '신(新)아시아 구상'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 분명하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이 지역 내 FTA 네트워크 허브(Hub)로 우뚝 서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과 FTA 급류를 타고 있는 두 나라의 흐름을 보면서 환태평양국이 우리에게 손을 적극적으로 내밀게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현재 상황은 긍정적이다. 한 · 아세안 FTA의 경우 그동안 협정 가입 의정서 서명을 미뤄오던 태국이 최근 상품 및 서비스 협정 가입에 뒤늦게 합류함에 따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상품 협정은 조만간 10개 회원국 모두를 대상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서비스 협정은 일부 회원국의 비준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자원외교, 그 달콤한 열매

지난해 브라질 등 남미 순방에서 자원외교 '씨앗'을 뿌렸던 기억을 이 대통령은 간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환태평양 국가 순방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자원외교였다. 무궁무진한 해외자원 창고를 확보함으로써 당장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이 순방 강행군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각 지역은 자원빈국인 한국에게는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양국간 바이오 에너지, 조림사업 협력 등 구체적 자원외교 결과물을 도출했다. 인도네시아와는 20만㏊ 조림지 추가 확보를 비롯해 산림 바이오 에너지 산업 육성방안, 동광 · 유전 등 주요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약속받았다.

특히 1981년 한국의 첫 해외유전 프로젝트인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유전사업의 계약기간(30년)이 곧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계약연장 검토 합의를 이끌어냈다. 아시아지역 '자원 창고'를 유지한 자원외교의 달콤한 열매였다.

미래생존 키(Key) 녹색성장 해답 찾기 강행군

이번 순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또 다른 키워드는 녹색성장이었다. 떠나기 전부터 녹색성장 기반을 넓히겠다는 이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했다. 미래 성장이 달린 녹색기술의 해답을 찾기 위해 현지 현장의 강행군 일정을 마다하지 않고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식물식품연구소를 찾았고, 호주 시드니에서는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연구소'를 시찰하는 등 왕성한 호기심을 보였다. 녹색성장의 성패가 신·재생에너지에 달렸다는 확신의 행보였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비즈니스포럼을 통해 정부와 기업인들에게 "녹색성장 협력 시대를 열어가자"고 주창했다. 이에 대한 3국의 반응은 공감과 환영 일색이었다.

녹색성장, 그 합치된 목소리

러드 호주 총리나 키 뉴질랜드 총리 역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 화두에 흔쾌히 동의했다. 이는 예상외의 굵고 튼실한 녹색 파트너십으로 연결됐다.

한국과 호주는 탄소저감 분야 협력 확대를 비롯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호주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 탄소수집저장 구상(GCCSI)'을 통한 전 세계적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도 합의했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회사이자 호주 최대 그룹인 맥쿼리로부터 10억 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유치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입키로 하는 돋보이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호주와는 또 태양광 에너지 분야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없애는 탄소포집 기술 개발에 협력키로 했다. 양 정상의 녹색성장 리더국을 향한 의욕이 이 같은 '의기투합'으로 이어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뉴질랜드와는 청정 에너지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한 녹색성장 분야에서의 전방위 파트너십을 약속했다. 재생에너지 및 나노기술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2차 협력창구 사업의 착수 등 과학기술 협력 약정도 진전시켰다.

양국의 녹색성장 협력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뉴질랜드는 산림과 농업부문에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협력 여지가 큰 나라다. 뉴질랜드는 농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에너지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도입해 강하고 효율적인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갖고 있다. 우리로서도 녹색성장에 관해 배울 것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호주, 뉴질랜드와의 녹색성장 파트너십은 올해 정부의 최대 국책과제인 녹색성장 프로젝트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명박號, 新아시아 구상으로 출항



청와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3월 8일 오전 아주지역 공관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남태평양 3개국 방문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월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신(新)아시아 구상'은 아시아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다.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침체가 가속화하고 세계 중심이 서(西)에서 동(東)으로 이동하면서 아시아 시장은 '잠룡'을 벗어나 날갯짓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확신이다. 따라서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과 경제통상은 물론 에너지, 자원, 녹색성장 등 실질협력 증진은 물론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책임있는 아시아의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주요 20개국(G20)에서의 넓어진 입지를 활용해 이 대통령이 아시아권의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복안도 내포돼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신아시아 구상을 밝히면서 "그동안 동북아에 치중했던 외교 지평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경제중점 협력 네트워크를 안보와 문화로까지 전방위로 확대하는 신아시아 외교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는 "자원전쟁

이명박 대통령, 녹색성장 밀알 캐기 만족

녹색성장의 외연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다. 국내에선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고 정부와 재계가 힘을 합치는 '녹색성장 산업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환태평양 지역과의 녹색 공조화는 상징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서울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라디오 연설을 녹음하며 녹색성장 성과에 많은 멘트를 할애한 것은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녹색성장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위기 극복 후 새롭게 재편될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리매김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반가웠던 일은 각국이 우리 정부의 비전이자 정책목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공동협력을 제안한 것"이라고 만족해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 녹색성장에 대한 일정한 해답을 구했다는 자신감이 내비친 발언이다.

이번 순방을 통해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대체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우뭇가사리와 같은 해양수산물과 팜 오일 등 대체에너지 자원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녹색성장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북도 크기의 조림지도 확보했다.

이번에 발굴한 환태평양 녹색벨트를 소중히 관리하고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G

글 · 김영상 헤럴드경제 정치부 기자



동아DB



동아DB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3월 6일 자카르타 할림 공항에 도착해 인도네시아 정부 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위).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3월 6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대를 맞아 경제협력은 대량파괴무기 확산, 테러, 해적 등 범세계적 안보위협에 대처하는데에도 아시아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대(對)아시아 경협 방향을 제시한 것에는 몇 가지 숨은 뜻이 있다.

우선 전방위 경협벨트 라인 구축이다. 아시아 모든 나라와 조속히 FTA를 체결하고, 각국과 '맞춤형 경제협력'을 다지면서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와 남태평양으로 경협 외연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과 무관치 않다. 우리 외교의 최대 과제인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를 이미 탄탄히 다졌기 때문에, 여세를 몰아 아시아국과의 공조를 통한 경제난 극복과 세계일류국가 도약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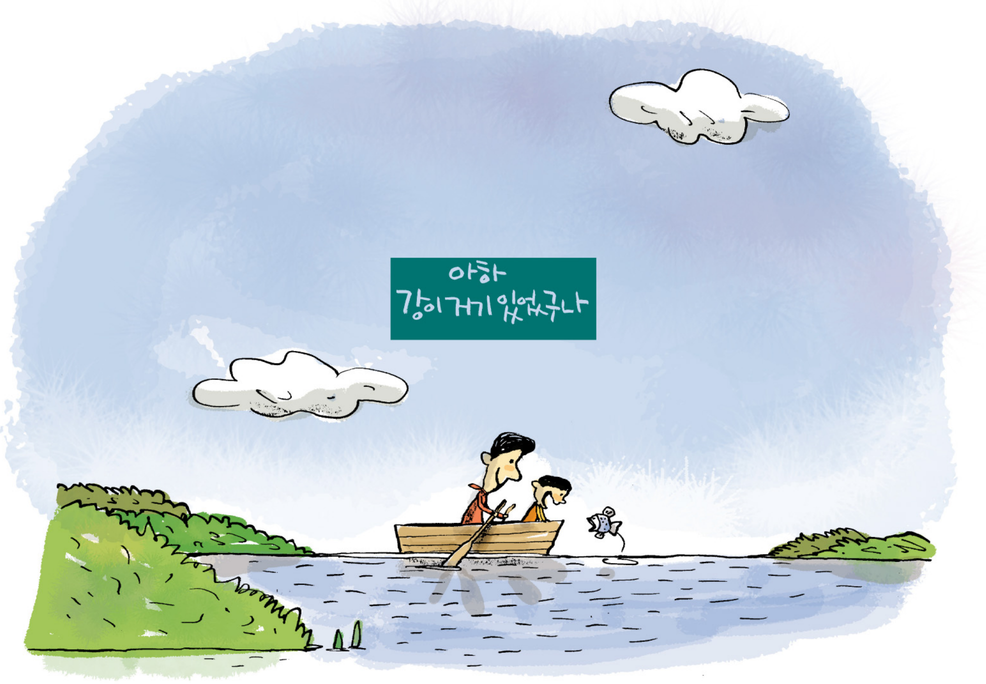
이 대통령이 자카르타에서 수행기자단 만찬을 갖고 "다행히 지난해 4강 외교가 1차적으로 (좋게) 끝이 났기에 이젠 상반기 중 아시아와 관계된 나라들과 정말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고 싶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아시아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이 대통령의 자긍심은 신아시아 외교로 줄달음하는 주요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미국 워싱턴 G20금융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 동결(Stand Still)을 제안했고, 지난해 7월 일본 도야코 선진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서는 선·후진국 간 녹색성장 가교 역할을 자임하는 등 가볍지 않은 위상을 확인했다.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게 신아시아 구상의 핵심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높여가겠다는 것도 미래를 위한 포석이다. 경제는 어렵지만 더 크게 거둘 결실을 위해 대(對)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을 아시아에서 캐겠다는 구상이다.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구 38억명의 아시아는 국내총생산(GDP)과 교역액이 각각 10조7000억 달러(세계 전체의 21%)와 8조 달러(26%)로, 북미,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3대 세력권이다. 한국의 지난해 대아시아 교역량은 4138억 달러로, 비중이 48%로 올라섰다. 이 같은 세계 최대 인구와 시장, 막강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아시아에 미래를 걸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충분해 보인다. 신아시아를 향한 이명박호(號)의 뱃고동은 울렸다.


아하
강이거기있었구나

경찰을 때리고도 무사하다면…

황호택 동아일보 수석논설위원

어려서 울거나 떼를 쓰면 어른들에게 “순사가 잡아간다” “호랑이가 잡아먹으러 온다”는 말을 들었다. 과거 일제강점기 세대에겐 긴 칼을 차고 다니던 일본 순사는 호랑이만큼 무서운 존재였다. 일본 순사를 본 적도 없고 호랑이는 동물원에나 가야 구경할 수 있었던 광복 후 세대나 전후(戰後)의 베이비 붐 세대에게는 어른들의 위협이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았다.

광복이 되면서 ‘일본 순사’는 ‘경찰관’으로 바뀌었다. 권위주의 정권이 경찰을 하수인으로 부리고 비호하면서 민초(民草)들에게 경찰관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나는 197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 당시 경찰관들은 서울 종로거리를 지나는 젊은 남녀를 붙잡아놓고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했다. 반항하면 곤욕을 치렀다. 1980년대 5공 정권 치하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을 붙잡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두들겨 패는 ‘백골단’이 설쳤다. 폭력 경찰의 추억은 그 무렵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돼 있다.

민주화가 이뤄지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경찰 폭력은 거의 사라졌다. 범법자가 아닌 한 경찰관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다. 관행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경찰관의 인권 의식도 높아졌다.

이제는 거꾸로 경찰관이 두들겨 맞는 세상이 됐다. 용산 사고 추모집회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갑을 강탈해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다. ‘추모 집회’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강도 행위다. 촛불집회 때도 경찰관의 옷을 벗기고 린치를 가하는 시위대가 있었다. 농민이나 노동자 단체들의 시위에서는 젊은 전경들을 향해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쇠파이프나 화염병은 플래카드나 피켓 같은 시위도구가 아니고 살상무기다. 우리의 동생 같고 아들 같은 젊은 전경들이 심하게 다쳐 병상에 누워 있는 모습을 목도한다면 시위대가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생활현장에서 국법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법치주의가 확립된 영국,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경찰관은 선망의 직업이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전경에게 살상무기를 휘두르는 시위대를 찾아내 법적 책임을 지우면 잘못된 시위문화는 사라질 것이다.

국민의 생활현장에서 국법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법치주의가 확립된 영국,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경찰관은 선망의 직업이다. 경찰관이 되려면 어려운 선발 절차를 거친다. 경찰관은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법집행도 엄격하고 공정하다.

우리 경찰관도 국민의 존경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출퇴근하는 운동부터 벌였으면 좋겠다. 출퇴근 지하철에 제복을 입은 경찰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성추행범이나 소매치기도 움찔해 감히 범행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G



동아DB

3월 7일 용산사고 추모집회 일부 참가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는 경찰관.

짧은 만남, 소중한 인연 내 추억 속의 대통령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을 기념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2일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올리는 '내 앨범 속의 대통령' 이벤트를 개최했다. 심사 대상작 306건 가운데 '대통령과 나'로 포토제닉상(대상)을 받은 김용구 씨 등 4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청와대는 열띤 호응에 부응하고자 홈페이지에 '내 앨범 속 대통령' 코너를 상시 운영하기로 하고 조만간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 포토제닉상 |

2003년 5월, 이 대통령과 나

2003년 '하이 서울' 행사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복궁에서 대신(大臣) 복장을 하신 모습을 보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촬영 때 저는 귓속말로 "이번에는 대권 도전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지만, 사진에 찍힌 얼굴 표정으로 볼 때 그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선거 때 당원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은 물론 친척과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부탁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을 때 그 기쁜 마음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진을 인화해 잘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번 이벤트를 마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용구 ·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상 소감

'내 앨범 속의 대통령' 이벤트의 수상자들은 수상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대통령과 나'라는 제목의 사진으로 포토제닉상(대상)을 받은 김용구(75세) 씨는 1999년 2월 수유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한 교육자이며 사진이 취미다. 김 씨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대상을 주셔서 그저 감사하고 기뻐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 모습에 반했어요'라는 제목의 사진으로 명장면상(최우수상)을 받은 김희정 씨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장애인을 다정하게 대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어서 사진으로 남겨놓았다"며 상을 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할아버지 꼬~옥 대통령 되세요'라는 제목의 사진으로 가슴뭉클상(우수상)을 받은 하경봉 씨는 "아이가 무척 좋아할 것 같다"며 "아들은 지금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뿌듯해한다.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많은 일들을 해내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리 · 김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 명장면상 |


1


2

1 경희궁에서 대통령 사인을 받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 2006년 경희궁에서 열린 어린이날 글짓기 때 대통령께서 사인을 해주셔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글짓기 때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사인해달라는 어린이에게 모두 해주고, 시장 집에도 놀러오라고 하겠다'는 내용으로 시를 썼습니다. 상은 받지 못했지만요, 지금은 청와대 어린이기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푸른누리' 보실 때마다 깜짝 놀라시죠? 항상 건강하시고, 대한민국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번 90주년 3·1절 행사에 참석하셨을 때 우리 가족도 현장에서 순국선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광복절 기념식에서 뵐게요. (정혜인·서울 송파구 가락동)

2 저 모습에 반했어요

서울시장 재임 시절 이명박 대통령을 모임에서 뵈었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혀 연출하지 않은 사진인데 저렇게 찍혔더군요.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모습,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 모습에 반했어요. (김희정·경기 의정부시 호원1동)

| 가슴뭉클상 |


1


2


3


4

1 이명박 할아버지 꼬~옥 대통령 되세요

2007년 12월 1일 진주 유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제 아들이 다섯살, TV 뉴스에 대통령께서 나오시면 '무조건' 유행가 노래를 율동과 함께 곧잘 부르던 것이 생각나 사진을 올립니다. (하경봉·경남 진주시 강남동)

2 가난한 예술가 주막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님

혹시 '시인통신'을 아시나요? 시인통신은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뒤쪽 피맛길 한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탁자 두 개에 의자 예닐곱 개가 전부지만 이곳은 한때 가난한 예술가들의 쉼터로 이름 높았죠. 술집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카페라고 하기에도 뭐한 묘한 곳이었습니다. 이 허름한 곳에 어느날 이명박 대통령(당시 서울시장 재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께서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해 각 테이블에 맥주 3병씩을 사주셨지요.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이명박 시장님, 이 맥주 마시고 오늘밤 세계적인 걸작(미술품)을 탄생시켜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화답하셨죠. "파이팅!" 왼쪽부터 정목일 수필가, 이명박 대통령, 이목일 화가, 주인장 한귀남 씨. (구본갑·경남 함양군 안의면)

3 옆집 아찌 대통령님~ *^^*

강원도 화천 군부대 가시는 길에 들러주신, 청평의 서민냄새 물씬 풍기는 도토리묵밥집. 높은 분들은 화려하고 궁궐 같은 음식점만 가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건 나의 착각! 묵이 참 맛나다며 밥 한 톨 남기지 않으시고 싹 비우시니 그것만도 감동인데, 내가 단번에 알아뵙지 못했는데도 '껄껄' 웃으시며 "이젠 기억해주겠네요~" 하시니 호탕하기 그지없고 정감이 가서, 매일 슈퍼에서 마주치는 옆집 아저씨 같았습니다. 정치인은 서민과는 입맛도 다를 것이라는 편견도 깡그리 사라져 더욱 '서민을 위하고 서민을 생각하는 이웃같은 정치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으니~! 전 믿어요! 힘들다고 한숨 쉬는 지금을 딛고, 더 활기찬 대한(大韓)을 만들어주실 것을! 대통령님 힘내세요~! 아자아자!^^ (김미연·서울 중랑구 면목동)

4 2005년 서울 여의도 벚꽃축제 때 이명박 시장님과 함께!

2005년 4월 16일 친구들과 여의도 벚꽃축제를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벚꽃축제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TV에서만 보던 분을 실제로 보니 너무나 신기해 사진 한 장 추억으로 남기자며 인파 속을 비집고 들어가 이 시장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무기^^ 애교를 부리며 사진을 찍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경호관 분들이 저지를 하시더니… 이 시장께서는 경호관들의 저지를 무시하고 웃으면서 함께 찍자고 하셨어요. 너무나 친절하셨고 인상도 서글서글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이정원·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희망으로 던지고, 집념으로 때린다

당당한 한국 야구에 전세계 팬들 박수 쏟아져

일본 도쿄돔에서 3월 9일 열린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아시아라운드 1, 2위 결정전의 한국대표팀 승전보는 고단한 경제상황에 놓인 우리 국민들에게 시원한 낭보가 됐다. 이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혼다클래식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HSBC위민스챔피언스를 동시에 제패한 양용은, 신지애 선수도 한국인의 힘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다.

WBC 한국대표팀 김인식 감독의 한국 프로야구 통산 전적은 934승42무948패. 1991년 쌍방울 감독을 시작으로 두산을 거쳐 한화에 이르기까지 15시즌 동안 쌓아올린 성과다. 그간 한국시리즈 우승도 두 차례 했지만 이긴 적보다 진 적이 많다. 큰 싸움을 이기기 위해 작은 싸움을 질 줄 아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야구계의 타짜'라고 칭송한다.

아울러 김 감독은 야구판에서 드물게 적(敵)이 없다. 매사 순리와 의리를 우선시해 어느 팀을 맡아도 노장을 보듬고 신인을 키워내며 코치진 인선에서도 자기 사람을 챙기지 않는다.

김 감독의 인생사 자체가 이 엄혹한 시대를 견디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는 응원가다. 그는 한화 감독 부임 직후인 2004년 말 뇌경색으로 쓰러졌지만 초인적인 노력으로 일어나 2005~2007년 3년 연속 한화를 포스트시즌에 진출시켰다. 또 2006년 제1회 WBC 감독으로 일본을 연파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팀을 격파, 세계 4강을 일궈냈다.

그리고 3년 후, 한국 야구는 아픈 몸의 김 감독에게 제2회 WBC 감독을 떠맡겼다. 마치 13척의 배를 이끌고 명량해전에서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처럼 김 감독은 절망적 상황을 딛고 역대 최강 멤버로 평가받는 일본 대표팀 '사무라이 JAPAN'을 아시아라운드 1, 2위 결정전에서 격침시켰다.

'봉중근 의사' 호투에 메이저리거 사무라이들 추풍낙엽

한국 야구 대표팀은 지난 1회 WBC 대회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보다 훨씬 약체로 평가받은 전력으로 도쿄에 입성했다. WBC 대표팀 출항도 순탄치 않았다. 백차승, 이승엽, 박찬호, 김동주, 김병현, 박진만 등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불참했다. 유일한 메이저리거 추신수는 소속팀 클리블랜드의 간섭 탓에 출장에 제약을 받았다. 대회 개막 때까지도 주전 라인업이 확정되지 않을 정도로 '적전분열'의 형편이었다.

반면 "세계를 제패하겠다"던 '사무라이 JAPAN'은 한국을 베기 위한 칼을 갈고 있었다. 이치로, 마쓰자카, 조지마, 이와무라, 후쿠도메 등 메이저리거를 5명이나 불러와 베이징



WBC 한국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덕장 김인식 감독.

연합

올림픽의 설욕을 별렀다. 5만여 도쿄돔 홈팬의 응원에다 대회 스케줄까지 절대적으로 일본에 유리했다. WBC는 투구수 제한이라는 특이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일본은 3월 5일 약체 중국을 상대한 뒤 7일은 한국-대만전(6일) 승자, 9일은 한국-중국전(8일) 승자와 상대하는 일정이었다. 반면 한국은 6일부터 나흘 연속 경기 일정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6일 대만을 잡고 7일 한일전에서 콜드게임 패를 당했으나 8일 중국에 콜드게임 승을 거둔 다음 9일 아시아라운드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통쾌한 1 대 0 영봉승을 거뒀다.

이번 WBC의 가장 큰 변수는 '패자부활전'이었다. 김 감독은 일단 '패자부활'이란 우회루트가 아닌 정공법을 택했다. 6일 대만전, 7일 일본전을 다 이겨서 미국에서 열리는 8강 리그 티켓을 조기 확보하겠다는 '플랜A'를 운용했다.

실제 첫 경기인 대만전에 에이스 류현진을 투입, 9 대 0으로 낙승했다. 이어 7일엔 일본킬러 김광현을 선발 예고했다. 그러나 베이징올림픽에서 두 번이나 당했던 일본은 김광현의 슬라이더를 해부, 한국은 결국 2 대 14, 7회 콜드게임 패를 당했다. 1998년 프로선수가 대표팀에 참가한 이래 사상 첫 일본전 콜드게임 패였다.

그러나 이 치욕의 순간, 김 감독은 '플랜B'를 가동하기 시작

했다. 굳이 콜드게임 패를 피하려고 투수를 소모하지 않았다. 대신 초점을 중국에 맞춰 14 대 0, 7회 콜드게임으로 잡고 미국행 티켓을 확보했다. 전력을 비축한 한국은 기고만장한 일본과 다시 맞붙어 치열한 투수전 끝에 사무라이의 칼을 부러뜨렸다. 프로선수가 참가한 일본을 영봉시킨 것 역시 사상 처음이었다.

불과 이틀 새 벌어진 드라마의 이면엔 두 가지 원동력이 더 숨어 있었다. 봉중근–정현욱–류현진–임창용으로 이어진 한국 투수진은 직구 위주 힘의 승부로 일본의 기술을 압도했다. 또 일본에 주눅 들지 않는 '베이징 키드'들은 "이치로가 별거냐"라는 여유로 기(氣)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

WBC 개막 전까지는 안 좋은 뉴스가 줄을 이었다. 김병현은 여권 분실로 하와이 전지훈련에 불참했고, 추신수는 "당장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클리블랜드의 성화에 시달렸다. 누더기가 될 정도로 엔트리 변동이 극심한 와중에서도 김 감독은 '팀워크'를 중시해 박기혁, 이범호, 최정, 임창용, 추신수 등을 끝까지 품었다.

감격의 눈물 흘린 김 감독 "코치들은 왜 안 울어?"

9일 한일전의 선발인 '난세 영웅' 봉중근은 안중근 의사를 본떠 '봉중근 의사'라는 국민별명을 얻었다. 소속팀 LG는 '봉중근 의사의 이치로 히로부미(이토 히로부미를 패러디) 저격' 티셔츠까지 제작했는데, 하루 만에 품절됐다. 일본전 승리 직후 김 감독은 눈물을 흘려 주위를 숙연케 하면서도 "감독이 우는데 코치들은 왜 안 울어?"라는 특유의 유머를 빠뜨리지 않았다. 반면 1회 WBC 때 "향후 30년 동안 일본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도발했던 이치로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고 통탄, 한일 양국의 희비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G

글 · 김영준 스포츠동아 기자

WBC 한국대표팀 경기일정(한국시각)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1경기 일본 vs 쿠바 (오전 5시) **2경기** 한국 vs 멕시코 (낮 12시)	**3경기** 1경기 패자 vs 2경기 패자 (낮 12시)	**4경기** 1경기 승자 vs 2경기 승자 (낮 12시)	**5경기** 3경기 승자 vs 4경기 패자 (낮 12시)	**1조 1, 2위 결정전** 4경기 승자 vs 5경기 승자 (오전 10시)	**휴식일**	**준결승전** 1조 2위 vs 2조 1위 (오전 10시)	**준결승전** 1조 1위 vs 2조 2위 (오전 9시)	**결승전** 오전 10시


연합

'사무라이 JAPAN'을 영패시킨 WBC 한국대표팀의 승리는 짜릿했다. WBC 아시아라운드 1, 2위 결정전에서의 승리를 자축하는 한국선수들.

"장갑을 벗기까지 포기는 없다"

신지애, 올 초 컷오프 탈락 후 곧바로 역전 우승
양용은, 좌절과 도전 끝에 마침내 PGA 정상 등극

"저도 놀랐어요. 1, 2라운드 성적이 좋지 않아 우승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욕심을 버리고 경기에 집중한 덕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3월 8일 싱가포르에서 끝난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위민스챔피언스에서 극적인 역전 우승을 거둔 후 금의환향한 신지애는 예상치 못한 우승에 기쁨이 더 컸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1, 2라운드에서 세계 톱랭커다운 플레이를 펼치지 못해 우승은 고사하고 '톱10'에도 들기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

"1, 2라운드를 마치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자고 스스로 다짐했죠.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 정말 신기하게도 경기가 잘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종 라운드에서 처음 4개 홀 연속 버디를 잡아 저도 많이 놀랐어요. 지금은 무척 행복해요."

사실 3주 전만 해도 신지애는 우승을 꿈꿀 입장이 못 됐다. 하와이에서 열린 개막전인 SBS오픈에서 어처구니없는 경기를 했기 때문이다. 신지애는 2라운드 도중 16번 홀에서 1m 정도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하지 못했다. 퍼터가 열린 채 맞아 볼은 홀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평상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신지애는 다음 17번 홀에서 드라이버샷을 감아친 탓에 볼을 덤불 속으로 보내고 말았다. 볼을 찾지 못해 전동카트를 타고 다시 티그라운드로 돌아간 신지애는 결국 더블보기로 홀아웃했고, 후반 4번 홀에서는 25m 거리의 버디 기회에서 4퍼트로 두 번째 더블보기를 범했다.

"괜찮아요. 30개 대회 가운데 이제 하나가 끝났을 뿐인데요.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시합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낼 거예요."



2라운드 후반부터 45개 홀에서 보기없이 버디만 14개

하와이 대회장에서 만난 신지애는 예선 탈락 후 짧은 소감을 밝히고 이어폰을 낀 채 음악만 들었다. 그리고 박세리, 최나연, 양영아 등 동료들과 호놀룰루의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쓰린 속을 달랬다. 서울로 돌아온 신지애는 다시 개막전 예선 탈락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했다. 귀국 직후 신지애는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고, 겸손해지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신지애는 곧바로 자신이 골프를 익힌 전남 담양과 영광에서 샷을 가다듬었다. 신지애와 함께 연습한 이일희 프로는 "지애가 연습 후 60~70개의 골프볼에 사인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며 걱정했다. 그러나 신지애는 강했다.

악천후로 파행 운영된 HSBC위민스챔피언스에서 거짓말 같은 역전 우승을 거뒀다. 2라운드 전반까지만 해도 신지애는 슬럼프를 우려할 정도의 허술한 플레이를 계속했다. 첫 홀인 10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벙커에 넣었고 한 번에 탈출하지 못해 트리플보기로 경기를 시작해야 했다. 하와이에서 보여준 난맥상을 재현하는 듯했다. 그러나 2라운드 후반부터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신지애는 최종 라운드 마지막 18번 홀까지 무려 45개 홀에서 보기는 단 한 개도 없이 버디만 14개를 잡아내 우승스코어를 만들었다.

귀국 후 국내에 머물며 다음 주 멕시코대회를 준비 중인 신지애는 "개막전에서 당한 예선탈락이 약이 됐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기쁘다. 주

미국 LPGA 투어 진출 3경기 만에 HSBC챔피언스에서
극적인 역전 우승을 거둔 신지애.



AP연합

미국 PGA 투어 혼다클래식에서 불굴의 투지로 정상에 오른 양용은.

변에서 슬럼프를 걱정해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마음은 다 없어졌다"고 말했다.

신지애의 승리는 또 다른 값진 승리를 불렀다.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가든스의 PGA내셔널 챔피언코스에서 열린 미국 PGA투어 혼다클래식에서 '야생마' 양용은이 불굴의 투지로 정상에 선 것. 양용은은 3라운드를 선두로 끝낸 뒤 인터넷을 통해 신지애의 우승 소식을 접했다. "나는 신지애처럼 뒤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선두다. 더 잘할 수 있다."

최종 라운드를 앞둔 양용은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양용은의 다짐처럼 경기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3~5번 홀의 줄버디 등 14번 홀까지 버디 5개를 잡아내며 4타차 선두를 달리던 양용은은 '베어트랩'으로 불리는 15~17번 홀에서 보기 2개를 범해 가슴을 졸여야 했다. 파3홀인 15번 홀과 17번 홀에서 티샷을 벙커에 빠뜨리며 2타를 잃은 양용은은 추격자 롤린스가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아 1타차로 쫓겨야 했다.

"15만원짜리 월세 살면서도 꿈 잃지 않았다"

운명의 18번 홀(파5)에서 양용은은 100야드 남짓 거리의 세 번째 샷을 날린 후 클럽을 놓아버릴 정도로 긴장했다. 볼은 핀 15m 지점에 떨어졌고 그린으로 향하는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볼과 홀 사이를 오가며 퍼팅라인을 읽은 양용은은 다행히 첫 번째 퍼트를 홀 30㎝ 지점에 붙일 수 있었고 두 번째 퍼트는 홀 중앙으로 떨어졌다.

"18번 홀의 퍼팅 거리가 제 인생의 길이만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속으로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 '할 수 있다'고 수없이 되뇌며 볼과 홀 사이를 왔다 갔다 했죠."

양용은의 혼다클래식 우승이 값진 이유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위해 도전정신을 발휘했다는 데 있다. 제주 관광산업고 출신인 양용은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한때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한 바 있다. 아마추어 시절에도 국가대표 등 엘리트 코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프로 입문 후 국내무대에서 뛸 때 양용은의 두 눈엔 자신감이 없어 보였다. 노력은 하는데 경기가 뜻대로 안 풀린다는 답답함만이 가득했다.

불운하던 양용은의 골프 인생에 희망의 빛이 들기 시작한 것은 2004년이었다. 일본 프로골프투어에서 정상에 오르며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2006년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유러피언투어 개막전인 HSBC챔피언스에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를 누르고 우승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대회에서 우승한 뒤 마스터스에도 나가는 등 제 꿈을 이룬 것 같아요. 하지만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는 골프에 대한 열정이 다소 식었고 샷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양용은은 HSBC챔피언스 우승으로 얻은 풀시드를 갖고 유러피언투어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까다로운 코스 세팅으로 예선 탈락을 반복하며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드로성 구질을 구사하는 양용은은 좁은 페어웨이와 깊은 러프로 무장한 유러피언투어에서 많은 좌절을 겪어야 했다.

"이왕이면 예선 탈락을 해도 최고의 무대에서 하자."

다시 한 번 선택의 갈림길에 선 양용은은 과감하게 미국 PGA투어 Q스쿨을 노크했다. 2007년 12월 6위로 Q스쿨을 통과해 PGA투어 정회원이 됐지만 미국의 다양한 코스에 적응하지 못해 상금랭킹 157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다시 Q스쿨로 갈지를 고민할 때 선배 최경주가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 있는 양용은의 집을 찾았다. 최경주는 "너 자신을 믿으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다.

힘을 얻은 양용은은 '지옥의 레이스'로 불리는 Q스쿨을 공동 18위로 통과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뒤 혼다클래식 우승으로 인생역전의 샷을 날렸다. 경기도 기흥의 15만원짜리 월세방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그저 포기하지 않고 꿈을 쫓다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골프채를 붙잡고 늘어졌다"던 양용은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G

글 · 이강래 스포츠서울 골프팀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여유를 띄워보세요!”



급할수록 **‘차 운전의 여유’** 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조급한 마음으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급한 마음은 교통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조금만 천천히 여유를 가져 보세요! 물 한 모금에도 여유를 띄웠던 옛 선조들의 지혜가 오늘날 교통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기획특집

대역사 첫발 디딘 경인운하

경인운하가 3월 27일 기공식을 갖는다. 경인운하는 경제불황 극복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인운하 건설을 통해 2만5393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3조9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2011년 12월 운하가 개통되면 경인지역은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관광·레저 공간이 들어서 주민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된다. 800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한반도의 숙원사업, 경인운하는 경제성장과 환경, 복지가 공존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뱃길로 하나로 잇는 경인운하는 '수도권의 기적',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강과 서해의 아름다운 만남

水鄕八景 벌써 그곳에 가고 싶다

인천 계양구 굴포천변에 자리 잡은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건설단 사무실에 들어서면 경인운하 조감도와 함께 '한강과 서해의 아름다운 만남, 경인운하'라는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강과 서해의 아름다운 만남이라….

인천 송도와 청라, 검단지구는 물론 경기 김포지구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동맥 역할을 할 경인운하는 국내 최초로 바다와 내륙을 잇는 대역사(大役事)다. 더욱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해 국제 관광·물류 중심지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서울의 기적'이었다면, 서울과 경기 인천을 뱃길로 하나로 잇는 경인운하는 '수도권의 기적',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기록될 지도 모른다. 내륙을 뚫어 바닷길을 여는 대역사의 현장, 경인운하 50리 뱃길을 따라 들어설 수향8경(水鄕八景) 예정지를 미리 둘러봤다.



3월 9일,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여러 날 지났건만 차가운 바닷바람은 여전히 옷깃을 여미게 했다. 굴포천과 서해가 만나는 영종대교 인근 배수갑문 위에서 바라본 인천터미널 예정지에는 강물이 고여 거대한 저수지를 이루고 있었다.

경인운하는 서해의 관문인 이곳 인천터미널 예정지에서부터 시작된다. 배수갑문 좌측으로 운하가 드나들 수 있는 새로운 갑문이 들어서고, 갑문 좌우측에 인천터미널이 조성된다. 284만㎡ 규모로 조성될 인천터미널에는 3선석 규모의 컨테이너 부두와 2선석 규모의 철강 부두, 5선석 규모의 해사(海沙) 부두 등이 들어서고, 1000대의 자동차를 수용하고 하루 500명의 여객 수송이 가능하도록 건설된다.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건설단 김현식 공사1팀 차장은 "중국 등지에서 오는 배가 경인운하로 원활히 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다 수심도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경인운하 앞 서해도 준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해 준설은 경인운하 초입 배수갑문 앞쪽에서부터 인천항에 이르는 항로까지 10m 깊이로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터미널 부지 건너편 서해에는 장차 요트 선착장 등 마리나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마리나 시설은 경인운하를 계획하면서 잡아놓은 수향8경(水鄕八景) 중 제1경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해의 마리나는 장래 계획으로 잡혀 있을 뿐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한 경인운하 건설 계획에는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 인천터미널은 수향8경 가운데 제2경이다.

제1경 마리나 시설은 경인운하 완공 뒤에 별도 건설

인천터미널 부지에서 시작되는 경인운하 주운수로 초입부 북측엔 수직으로 제방이 조성돼 있다. 운하 위쪽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여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경인운하건설단 이현재 과장은 "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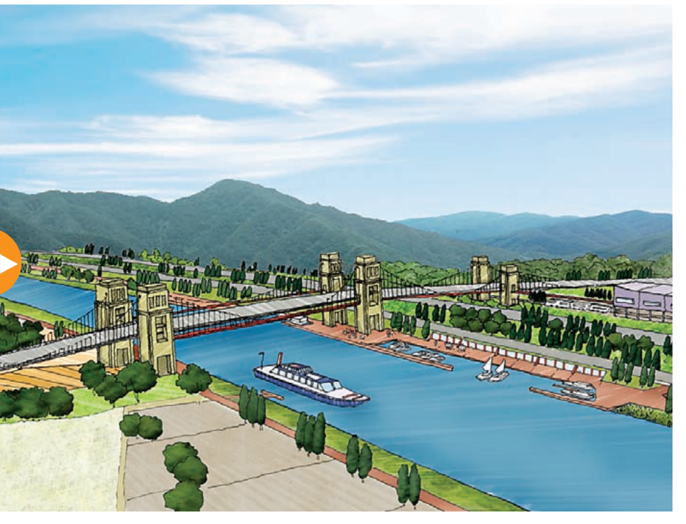
50리 뱃길따라 개벽 퍼레이드





1경 : 서해(장래 계획) 2경 : 인천터미널(테마공원 등)





3경 : 시천교 주변(경관 교량, 선착장, 수변데크 등)





4경 : 리버사이드 파크(인공폭포, 수변카페, 전망대 등)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시작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경인운하로 확대됨에 따라 그 효율성은 수십, 수백 배로 높아질 수 있다며 주민들은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포천 방수로 사업 당시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설계가 이뤄졌다"며 "다른 지역은 비스듬히 경사가 진 제방이 조성되지만 이곳은 수도권 매립지가 가까워 오염방지장치를 한 뒤에 제방을 만들다보니 수직으로 조성됐다"고 밝혔다. 기초를 튼튼히 닦아놓은 덕분에 운하가 건설되더라도 수도권 매립지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은 일찌감치 차단된 셈이다.

경인운하 착공식은 3월 말로 예정돼 있다. 그렇지만 현장을 방문한 9일 오후에도 굴착기 여러 대가 주운수로 바닥에 있는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다. 물이 차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나 흙더미가 어지럽게 널린 주운수로는 비록 황량해 보였지만, 굴착기의 움직임에 따라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인천터미널 부지에서 5km쯤 내륙으로 들어오면 시천교 예정 부지가 나온다. 경관 교량으로 건설될 시천교는 현재는 임시 가교가 설치돼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시천교 우측 동산에는 경인운하 홍보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50m 높이의 기념탑도 세울 계획이라고 했다.

김현식 차장은 "시천교 주변에는 선착장과 수변 데크 등으로 꾸며 국민 누구나 운하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천교 주변은 수향8경 중 제3경에 해당한다.

경인운하 홈페이지(www.kicanal.kr)에 따르면, 시천교 북측에 향유원과 바람개비 공원이 들어선다. 향유원에는 수변 휴게시설과 전망대, 산책로 등이 들어서고, 바람개비 공원은 목가적이고 한가로운 풍경으로 조성된다. 이 같은 계획 때문인지 시천교 주변을 지나다 보면 '경인운하 건설'을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여럿 눈에 들어온다. 그린벨트로 묶여 오랫동안 개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 지역이 경인운하 건설을 계기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시천교 주변엔 '경인운하 환영' 플래카드 내걸려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시작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경인운하로 확대됨에 따라 그 효율성은 수십, 수백 배로 높아질 수 있다며 주민들은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경인운하지역협의회 박한욱 위원장은 "방수로 사업에 그쳤다면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았다"며 "국가가 직접 나서 운하를 건설하고 운용하게 되면 제대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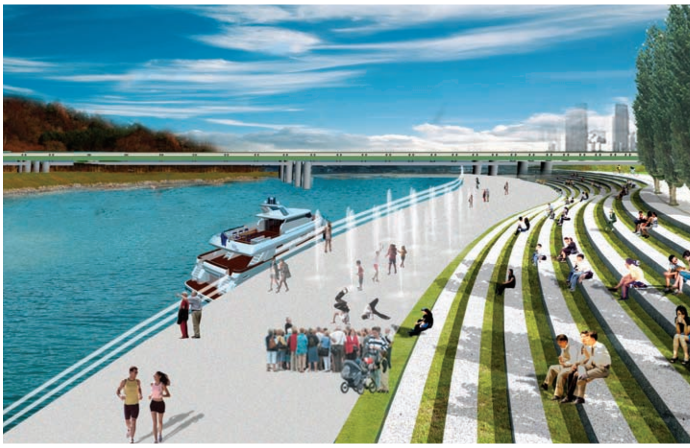
실제로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는 여름철 집중호우 때로 대략 보름에서 20일가량에 불과하다. 나머지 기간은 건천으로 남겨둘 운명이었던 것. 그러나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홍수 피해 방지는 물론, 연중 내내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고 수변공간을 1년 365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즉 경인운하 건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목적 토목사업이라는 얘기다.

박한욱 위원장은 "운하 주변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며 "난개발만 방지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 (그린벨트를)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공폭포와 수변카페, 전망대 들어서

경인운하를 건설하는 동안 운하 남측과 북측에는 각각 제방도로가 건설된다. 북측엔 왕복 2차로 도로가 들어서고, 남측에는 편도 2차로 고속화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다. 동시에 운하 수로변에는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진다. 서울을 기준으로 김포터미널을 출발해 인천터미널을 돌아 다시 김포터미널로 돌아오는 약 40km의 사이클 코스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천교에서 공사현장 진입로를 따라 다시 1km쯤 더 내륙으로 들어오니 리버사이드 파크 예정지가 나왔다. 지대가 높아 이곳에서는 좌우로 흐르는 뱃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이 같은 지형을 활용해 리버사이드 파크에는 운하 북측에 인공폭포를 만들고 수변카페도 조성한다. 또 미국의 그랜드캐년 등에 설치돼 있는 것과 같이 걸어서 운하 위를 걸어 돌아볼 수 있도록 전망대도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밋밋한 암벽에 인공폭포와 전망대가 들어설 것을 상상해보니 '불가능은 없다'는 말은 나폴레옹만의 전유물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거친 들판에 불과한 이곳을 뱃길로 만드는 경인운하사업이야말로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케 할 대역사가 아닐 수 없다.

다시 운하를 따라 3km쯤 더 내륙으로 들어오자 굴포천변에 위치한 경인운하건설단 건물이 보였다. 건설단이 들어선 곳에는 운하를 가장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만경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통 정원과 대숲정원, 선착장 등으로 꾸며질 만경대는 국민들이 쉽게 운하를 접할 수 있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주민들이 가볍게 나들이 삼아 다녀갈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만경대 조감도에 따르면 물이 흐르는 높이와 가장 비슷한



경인운하 예정지의 외곽순환고속도로 교량은 아치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높이에 수변 데크 등을 조성해 산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만경대를 설치해 큰 누각에 앉아 운하를 운행하는 선박이나 요트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경인운하건설단에서 김포 방향으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경인운하 주운수로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가 눈에 띈다. 바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다. 그런데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량이 다른 지역과 달리 운하 예정지 위에는 커다란 아치 모양으로 널따랗게 벌려서 설치돼 있다.

김현식 차장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경인운하 건설을 예상해 배가 지날 수 있도록 교량을 설치했기 때문"이라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현재 상태로도 운하가 완공된 뒤 배가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는 운하 주변지역에는 두물머리 생태공원이 들어선다. 김포터미널에서부터 이곳까지 운하가 건설되면 한강에서 흘러온 물과 굴포천 본류가 만나 두물머리가 자연스레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수향8경 가운데 제6경이 이곳에 조성된다. 생태습지와 생태체험장, 어류 서식처 등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인천터미널에서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나란히 흐르던 경인운하는 이곳에서 방향을 틀어 김포터미널로 향한다. 즉 기존의 굴포천 방수로 사업 지역에다 김포터미널 인근 한강까지 3.8km를 연결하면 경인운하 전체 뱃길이 완성되는 것이다.

외곽순환고속도로 교량 아치형으로 앞 내다본 설계

김포대교와 행주대교 중간쯤에서는 김포터미널 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임시 전망대 설치공사가 한창이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김포터미널 부지는 평평한 논이었다. 약 200만㎡ 규모로 들어설 김포터미널에는 갑문 1기, 컨테이너와 해사·레저용 등 모두 13선석의 부두가 설치된다. 김포터미널 한편에는 요트 등을 정박해놓을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이 들어서고, 수변공원도 조성된다. 김포터미널 부지가 수향8경 가운데 제7경이고, 한강 둔치 쪽에 조성될 마리나 시설이 제8경이다.

지금은 거친 들판에 불과한 이곳을 뱃길로 만드는 경인운하사업이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을 실감케 할 대역사가 아닐 수 없다. 3월 27일 기공식을 갖는 경인운하는 2년 반 뒤 우리에게 그 위용을 드러낼 것이다. G

글·구자홍 기자

"랜드마크 되도록 명품운하 만들겠습니다"

정진웅 경인운하건설단장



3월 9일 경인운하건설단 사무실에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직원이 많지 않았다. 보상팀 직원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설명회를 여느라 자리를 비웠고, 공사팀 관계자들도 공사 예정지를 둘러보고 착공식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다.

1995년 3월 민자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돼 추진돼왔던 경인운하 건설이 올해 초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직원들과 함께 주민 대상 보상 설명회에 참석한 뒤 이날 오후 늦게 사무실에 돌아온 정진웅 경인운하건설단장을 만났다.

"경인운하는 지역경제와 지역 주민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정 단장은 경인운하가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인운하는 국내 최초로 이뤄지는 운하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게 여기고, 그 역할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운수로가 완공돼 운하가 제 역할을 하게 되면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정 단장은 운하 건설을 통해 홍수 예방과 물류비 절감 외에도 문화·관광·레저 산업이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 편익 제고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명품운하로 만들어 주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인운하의 완공 예정 시기는 2011년 말이다. 길어야 3년, 짧게는 2년 반 만에 18km에 달하는 운하가 건설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인천과 김포에는 200만㎡가 넘는 부지에 대규모 터미널이 들어서고, 운하 주변 곳곳에는 수변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원대한 계획에 비해 공사기간이 너무 짧지 않으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정 단장은 "공기를 단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금까지 축적된 우리나라의 건설 노하우와 기술이 결합한다면 3년 안에 운하를 완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에라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공법을 적극 개발해 적용한다면 목표한 완공 기일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홍수 걱정 끝, 사람 몰릴 걱정 시작?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는 운하 주변지역에는 두물머리 생태공원이 들어선다.
김포터미널에서부터 이곳까지 운하가 건설되면 한강에서 흘러온 물과 굴포천 본류가 만나
두물머리가 자연스레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5경 : 만경대(전통정원. 대숲정원, 선착장 등)




6경 : 두물머리 생태공원(생태습지, 생태체험장, 어류서식처 등)




7경 : 김포터미널(마리나, 파크 등) 8경 : 한강 고수부지(장래 계획)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경인지역은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발돋움한다.

2011년 동북아 대동맥으로 발돋움

2만5000여명 고용, 약 3조원 생산 유발 효과

14년간 갑론을박을 벌여온 경인운하가 2011년 12월이면 그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경인운하를 왜 만드는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는지,
완공 후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폈다.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경인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경인운하가 드디어 3월 말 착공된다. 2011년 12월 경인운하가 완공, 개통하면 경인지역은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 될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관광·레저 공간이 들어서 국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인운하 건설이 이뤄지기까지는 곡절도 많았다. 1995년 민자사업으로 처음 사업이 추진된 이래 14년간 경제성과 환경 파괴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그만큼 경인운하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기폭제가 될 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고려시대부터 경인운하 필요성 제기

경인운하의 필요성은 고려시대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당시 각 지방에서 거둔 조세를 중앙정부로 운송하는 조운(漕運) 항로는 김포와 강화도 사이의 염하를 거쳐 서울 마포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염하는 만조 때나 선박 운항이 가능했고, 손돌목(강화군 광성리 해안)은 3대 험로로 불릴 정도로 뱃길이 험해 사고가 잦았다.

고려 고종 당시 실권자인 최충헌의 아들 최이는 안정적인 조운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굴포운하 건설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의 건설 기술로는 원통현 400m 구간의 암석층을 뚫을 수 없어 포기했다. 조선 중종 때도 김안로가 경인운하 건설을 시도했지만 역시 암석층을 뚫지 못하고 도랑만 파다 포기했다. 이때 판 도랑이 지금의 굴포천이다. 〈정조실록〉에도 경인운하 노선 계획이 언급돼 있는 것을 보면 그 옛날부터 경인운하 건설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총독부가 경인운하 건설을 계획했지만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흐지부지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5년에도 건설이 추진됐다가 경인지역의 급속한 공업화로 육상교통기반이 발달하면서 유야무야됐다. 결국 건설계획은 1980년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경인운하 건설이 다시 제기된 것은 1995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다. 1996년 10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됐고, 1998년 3월엔 (주)경인운하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실시협약까지 체결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경제성 논란과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00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특별한 환경 피해는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몇몇 미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네 차례 보완을 거쳐 대부분 해소했다.

바닷모래를 실어나르는 부두가 철새 경유지와 붙어 있다는 지적이 있자 철새 경유지 이격 거리(10km) 확보를 위해 부두 위치를 행주대교 남단에서 난지도 전면 하천 둔치로 이전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공기업 직접 시행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녹색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경인운하사업의 조속한 착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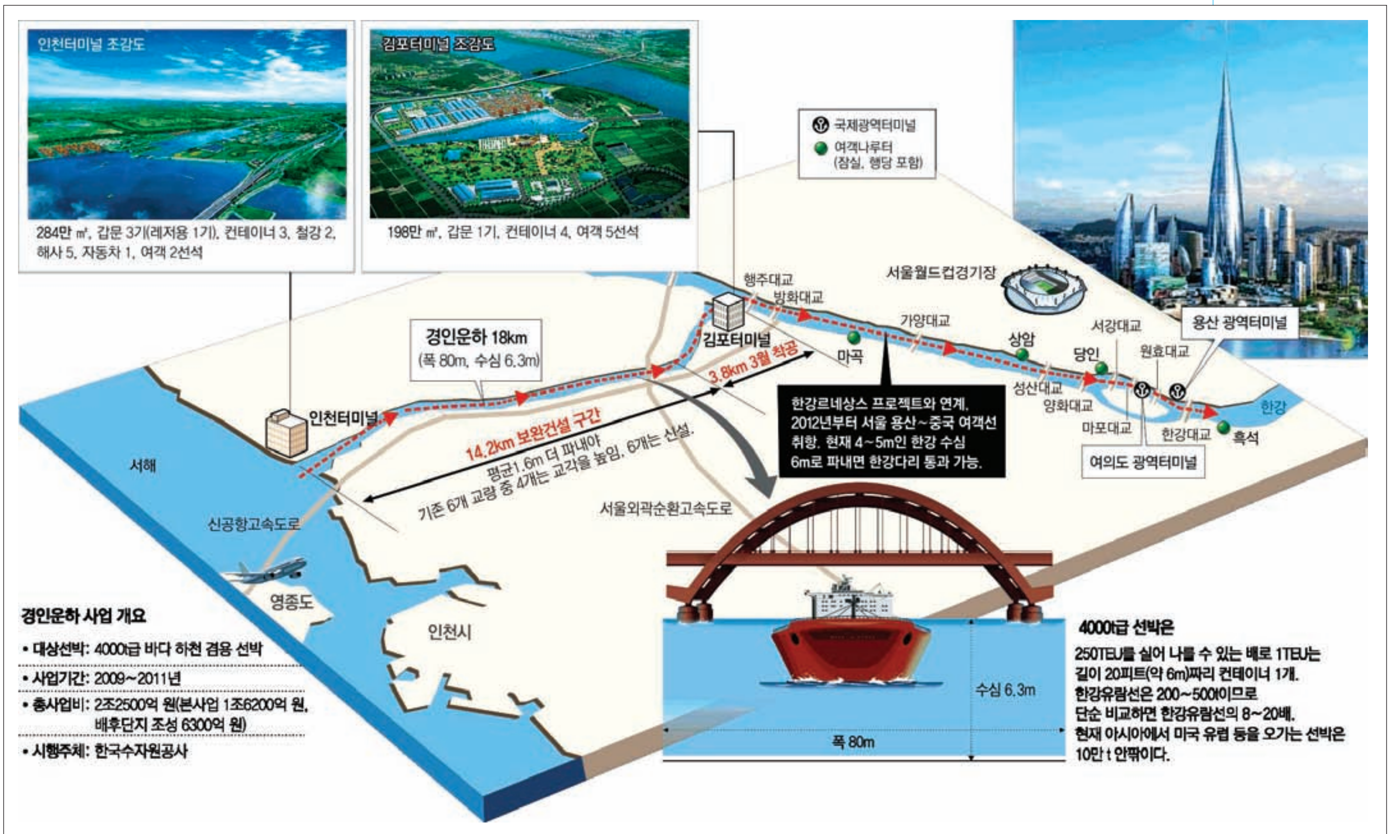
감사원도 경인운하에 대해 2003년 3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당시 운하를 운항할 계획이던 선박이 교량과 부딪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 선박을 재검토할 것과 물동량 및 경제성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정부는 2003년 9월 민자로 추진 중이던 굴포천 방수로 사업과 제방도로 건설을 국고로 전환해 먼저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 경인운하 민간사업자와의 실





굴포천 공사 현장(왼쪽).
올해 1월 12일 열린 경인운하건설단 개소식 모습.



시협약이 해지됐다.

정부는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성과 사업내용 등에 대해 국내외 연구기관 합동으로 재검토를 추진했다. 2004년 8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운하 전문기관인 네덜란드 DHV사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것. 그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76으로 경제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B/C가 1보다 높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인운하 사업은 쉽게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인운하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대상선박을 2500t급 연안해운선에서 4000t급 R/S선박으로 변경하고, 레저용 갑문 및 요트 계류장(마리나) 부두를 추가했다. 또한 해수의 유입을 차단했던 것을 수로 내에 해수 유통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경인운하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게 한 결과 역시 B/C=1.07로 수익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2030년을 기준으로 컨테이너 97만t, 철강 75만t, 자동차 7만6000대, 바닷모래 913만㎥, 여객 105만명이 경인운하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같은 해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에서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방향을 확정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공기업 직접 시행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녹색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경인운하사업의 조속한 착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여건에서는 민자 유치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KDI에서도 민자사업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경인운하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지난 2월까지 마무리한 데 이어 공개 입찰을 통해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월 3일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5월 4일 입찰을 실시한다. 5월 25일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과정을 거친 후 6월 30일 터미널, 갑문 등 본공사를 착공한다.

그동안 경인운하 건설이 늦어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역 국회의원 등은 사업의 조속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2006년 5월에 지역 주민 5만명이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는가 하면 2006년 10월엔 지역협의회도 발족됐다. 인천시, 인천시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등에서도 조기 시행을 촉구(2007년 6월)했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지속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2월 11일엔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경

인운하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경인운하 연계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인운하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인운하는 한강과 서해를 연결해 화물을 운송할 뿐 아니라 문화·관광·레저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경인운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1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데 이어, 3월 말 굴포천 방수로~김포터미널 연결수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대사업이 시작된다. 6월엔 설계와 시공을 동시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 방식으로 교량, 갑문 등 주요 공정이 착공돼 2011년 12월이면 완공 및 선박 운항이 가능해진다.

경인운하는 주운수로가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까지로 총 18km다. 그럼에도 사업기간이 짧은 것은 이미 조성된 굴포천 방수로 구간 14.2km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공사가 벌어지는 구간은 굴포천 방수로와 한강을 잇는 3.8km다. 여기에 인천 및 김포터미널 설치공사, 갑문설치공사, 대체교량 및 접속IC공사 등이 더해진다. 방수로의 경우 운항수심(6.3m) 확보를 위해 현재 깊이에서 평균 1.6m를 더 굴착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조2500억원으로 본사업비가 1조6200억원, 배후단지 조성비가 6300억원이다.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한 후 향후 운영 수입, 배후단지 분양 등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주운수로의 양쪽 끝단에 284만㎡(86만 평) 규모의 인천터미널과 198만㎡(60만 평) 규모의 김포터미널을 조성한다. 인천터미널은 갑문 3기(R/S 2기, 레저용 1기), 부두 13선석(컨테이너, 해사, 철강, 중고차 및 여객)으로 돼 있다. 김포터미널은 갑문 1기(R/S), 부두 14선석(컨테이너, 바닷모래 및 레저용)으로 돼 있다.

또한 인천터미널 내에 108만㎡(32.7만평), 김포터미널 내에 74.6만㎡(22.6만평)의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배후단지에는 화물창고, 분류·가공·조립 시설, 유통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을 연결하는 15.6km에 걸쳐 4차선 제방도로도 건설된다. 이밖에도 경인운하를 횡단하는 교량 12개가 들어서 운하로 말미암은 인천과 경기의 남북 단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운하를 운항할 선박은 4000t급 R/S선박이다.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바다-강 겸용선박(Sea-River Vessel)으로, 크기와 형태 면에서 연안수송과 내륙주운수송을 동시에 만족시킨다고 한다. 평균 160TEU, 최대 250TEU를 운반할 수 있는데 컨테이너, 철강, 자동차, 바닷모래 등을 운송할 예정이다. 2030년을 기준으로 컨테이너 97만t, 철강 75만t, 자동차 7만6000대, 바닷모래 913만㎥, 여객 105만명이 경인운하를 통해 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좋아져요

한국수자원공사 정진웅 경인운하건설단장은 경인운하의 효과에 대해 "경인운하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침수로 발생되는 막대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굴포천 방수로사업과 연계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물류난 해소와 더불어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인운하 건설을 통해 약 2만5393명의 고용효과와 약 3조9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굴포천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경인운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왼쪽).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2월 11일 경인운하 연계사업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행사를 가졌다.

수해 예방 및 효율적 유지 관리

굴포천 유역(인천 계양·부평, 경기 부천·김포)은 40%가 한강 홍수위 이하의 저지대로 상습적인 수해 발생 지역이었다. 평상시는 하천물이 한강으로 흐르지만, 홍수 때는 한강 수위가 굴포천 수위보다 4m 이상(100년 빈도) 높아 자연배수가 불가능하다.

1987년 7월에 사망 16명, 이재민 5427명, 재산피해 420억원 등 막대한 피해를 안긴 굴포천 유역 대홍수를 계기로 1992년 홍수 때 굴포천 물을 서해로 흐르게 하는 방수로 사업에 착수했다. 1994년 4월엔 굴포천 치수계획을 변경해 방수로 바닥 폭을 40m에서 80m로 확대했다.

그런데 방수로만 건설하면 매년 116억원(방수로 공사비 4671억원의 2.5%)의 유지관리 비용이 별도로 소요된다. 하지만 굴포천 방수로를 운하로 함께 사용하면 항만하역료 등 일정한 수익을 통해 국고지원 없이 안정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방수로만 건설했을 때는 연간 홍수기의 보름 동안만 활용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물이 마르거나 수질오염, 쓰레기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의 우려가 크다. 하지만 운하를 건설해 사용하면 나머지 350일 동안에도 활용할 수 있다. 더구나 서해 해수가 들어와 수질향상 등 친환경적인 관리도 가능하다.

물류비 절감, 교통난 완화

현재 우리나라의 화물운송 수단은 도로 중심이다. 경인운하는 이를 선박운송 등으로 연계, 흡수함으로써 국내 물류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광양 등에서 도로로 운송하는 컨테이너를 연안을 따라 수도권으로 운송하면 실제 화물 이동거리가 500㎞ 이상에 달한다. 이를 운하를 통해 트럭 250대 수송 분량의 컨테이너에 실어 한 번에 운반하면 컨테이너 1TEU당(부산~김포) 약 6만원의 물류비가 절감된다. 배 한 척당 최고 1500만원(250TEU×6만원)의 절감 효과를 얻는 셈이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는 물동량을 흡수하게 돼 내륙교통난을 완화하고, 도로 신설 및 확충에 따른 사회간접비용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운하는 육상교통수단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비가 적어 친환경적이다. 따라서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한다. 운하는 에너지 효율이 철도의 2.5배, 도로운송의 8.7배 수준이다(미국 교통부). 운하와 대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철도가 1.4배, 도로가 4.9배 수준(독일 연방수로국)이다. 대기 및 수질오염, 사고 등을 종합한 환경비용이 운하는 도로의 14분의 1, 철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인운하는 연안해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성적인 체선에 시달리는 인천항의 기능을 인천터미널이 분담함으로써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져

경인운하는 홍수피해를 예방할 뿐 아니라 수도권 물류난 해소, 경인지역의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경인운하는 친환경적으로 꾸며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인운하 조감도(왼쪽).
친환경운하로 유명한 프랑스 파리 생마르탱 운하.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 또한 중국이나 부산 등에서 온 화물이 환적 없이 김포터미널까지 바로 들어오므로 수도권 북부 지역 화물 처리에도 유리하다. 한강~서해를 연결하는 여객 및 관광선 운항과 화물운송의 활성화는 서울의 도심 교통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경인운하는 서울과 서해를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레저 활성화

강과 바닷길을 잇는 경인운하는 문화, 관광, 레저 등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송도·청라·검단·김포지구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동맥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경인운하와 인천 북항을 잇는 항로를 신설해 인천의 해상물류산업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또한 경인운하를 통해 '공해도시' 이미지를 벗고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높여 세계 10대 명품도시로 탈바꿈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특히 운하 건설 예정지의 대부분은 1970년대부터 3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방치되다시피 했던 곳이다. 이 지역에 문화·레저 시설이 들어서고 여러 개의 신흥 미니도시가 조성되는 등 인천 서북부 지도 자체가 바뀌게 된다.

먼저 인천시 서구 시천동에 들어서는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인근의 나대지를 50만㎡ 규모의 미니 수변 도시로 조성한다. 운하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 고급 빌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 살게 될 5만~7만여 명의 주민들은 수상택시로 서울이나 영종도,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출퇴근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던 백석동에도 새로운 물류 단지와 고급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경인운하 인근 지역에 골프장, 수영장, 승마장 등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을 조성하고 수도권 주민들이 운하를 이용해 주경기장을 편리하게 방문하도록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계양산과 연계한 생태공원과 자전거 전용도로도 설치한다.

서울시는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항구·워터프런트(Waterfront·수변) 도시로 만드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계획 아래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5개 부도심(상암, 영등포, 용산, 왕십리, 영동)과 강서구 마곡 전략 중심지 등으로 재편하고, 서해와 연결하는 주운(舟運)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강르네상스 사업 계획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여의도와 용산에 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들어 서울과 중국을 운항하는 5000t급 직항 국제여객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서울숲, 뚝섬, 당인리, 반포 등 6곳에 여객 선착장을 만들고, 마곡, 난지, 잠실 등 4곳에 요트 계류장과 수상레저 시설을 짓는다. 최대 5000t급 국제여객선이 다닐 수 있게 수심을 한강 본류(신곡~잠실수중보)는 4~6m, 중랑천과 탄천 같은 주요 지천은 2.8m로 정비하고, 김포 신곡수중보에는 갑문을 설치한다.

경기도는 경인운하 사업을 계기로 국가성장동력의 중심지로 거듭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김포와 이산포에 여객터미널 등을 조성해 국내물류뿐 아니라 국제물류망의 거점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비무장지대(DMZ)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포함하는 '한강하구 남북 공동번영지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G

글·최호열 기자

Q 경인운하 길이 18km에 불과해 경제성 없다는데?

A 실제 화물거리 500km 물류비 큰폭 절감

경인운하는 경제성도 없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경인운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잘못된 언론보도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간추렸다.

Q| 경인운하는 한반도대운하의 선도사업이다?

A| 경인운하는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대운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치수 목적으로 건설 중인 굴포천 방수로(14km)를 3.8km만 연장하면 물류, 친수기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Q| 방수로를 경인운하로 전환하면 홍수 위험이 있다?

A| 운하를 건설하면 비상시 서해갑문 활용 등으로 배수능력이 향상되어 굴포천 유역 홍수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해 조위영향은 방수로 또는 운하에 관계없이 발생하나, 최악조건(만조)을 기준으로 홍수처리가 가능하도록 검토됐으며, 서해수위(일일 수위 ±3m~±4.6m)가 홍수위(100년 빈도·6.2m)보다 낮아 방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 경인운하 이용 때 추가적인 환적 절차로 물동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다?
A 트럭 250대 분량의 컨테이너를 한 번에 대량운송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도로 5km에 트럭이 늘어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Q| 경인운하 이용 때 추가적인 환적 절차로 물동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다?

A| 경인운하 대상화물은 중국 또는 부산 등지에서 출발해 중간 환적 없이 운하수로를 통과해 김포지역까지 직접 운송됩니다. 따라서 화물운송은 일반항만과 동일하며, 별도의 환적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증가 등은 없습니다. 아울러 경인운하를 통해 트럭 250대 분량의 컨테이너를 한 번에 대량운송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트럭 1대당 20m로 계산하면 도로 5km에 트럭이 늘어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Q| 경인운하 사업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A|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2000년 6월~2001년 12월)에서 4차례 보완을 거쳐 수로 내 수질 대책, 서해 담수 충격, 철새도래지 관련 등 대부분 쟁점사항이 해소됐으며, 전문용역 결과(DHV·2004년 8월~2006년 5월)에서도 경인운하 건설로 유발되는 특별한 환경피해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오히려 수로 내에 서해 해수를 유통할 경우 현재 굴포천보다 수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될 환경영향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유럽에서 운항 중인 R/S선박은 경인운하~중국 운항이 불가능하다?

A| 연안수송(Costal Shipping)이나 근해수송(Short-Sea Shipping)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길수록 육로수송보다 경쟁력이 높습니다. 유럽의 경우 바다와 강을 모두 운항할 수 있는 R/S선박을 활용해 수백km 이상의 내륙 목적지까지 직접 화물 등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R/S선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 기관인 SPC(Short sea Promotion Center) 자료에서도 (해상) 북해(로테르담)~상트페테르부르크~(내륙) 카자흐스탄~카스피해에 이르는 수백km 이상의 운송라인을 참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를 통행하는 선박은 운항경로, 조건 등에 따른 최적설계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건조될 것입니다.

Q| 경인운하는 18km로 거리가 짧아 경제성이 없다?

A| 경인운하는 부산, 광양 등지로부터 도로를 이용해 운송되는 화물(컨테이너)을 연안해운과 연계해 인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운송하므로 실제 화물거리는 500km 이상입니다. 인천항의 기능 분담과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는 물동량을 흡수해 내륙교통난 완화 및 물류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Q | 굴포천 방수로 구간 공사비를 제외해 비용을 줄이고, 비현실적인 가상선박으로 선적 용량을 올려(2500t→4000t급) 예상 물동량을 1.6배가량 늘리는 등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높였다?

A | 경인운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이미 치수사업으로 확정돼 추진 중인 굴포천 방수로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제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굴포천 방수로는 2003년 9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사업 추진이 확정돼 현재 폭 80m 굴착공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또한 물동량은 선적 용량을 올린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 계획보다 감소했습니다.

Q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를 보면 민자사업 시행 때 건설·운영비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면 15%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

A | '경제성'과 '민자적격성' 분석은 별개 내용입니다. 경제성은 민자 또는 재정에 관계없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사업효과를 검토한 것이고, 민자적격성은 경제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민자 또는 재정 등 어느 방식으로 추진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자적격성 조사는 경제성 또는 적자 발생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KDI 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현재 금융경색으로 민간 자금 조달이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해 공기업 추진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KDI 조사 결과는 민자사업 추진 때 건설·운영비가 15% 감소해야 민자로서 적격성이 있다는 것으로 국가재정사업이 민자사업보다 유리함을 분석한 것입니다.

Q | 경인운하 3.8km 파는 데 2조원이나 든다?

A | 경인운하 사업비 중 방수로와 한강을 연결하는 3.8km 구간의 사업비는 총 1200억원에 불과합니다. 총사업비 2조2500억원은 연결수로(3.8km), 터미널(인천, 김포), 배후단지(인천, 김포), 횡단교량 건설(7개소) 등에 소요되는 총비용입니다. 본 사업비는 추후 설계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김포터미널 조감도.

"아빠 '놀토' 잖아요 경인운하 놀러가요"

볼거리, 놀거리, 배울거리 가득… 가족 나들이 명소로 자리매김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국민의 여가생활을 바꿔놓을 명소가 될 전망이다.

"아빠! 빨리 일어나."

큰아들 본준이가 아침 댓바람부터 흔들어 깨운다.

"생태체험장 가기로 약속했잖아. 아빠!"

그러고 보니 오늘이 본준이의 '놀토(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 다. 생태체험장이며 어류서식처를 다녀온 친구들의 자랑을 듣고 조르기 시작한 지 벌써 한달째다. 오늘을 놓치면 다음 놀토까지 다시 2주를 더 시달려야 할지 모른다. 자꾸만 감기는 눈에 억지로 힘을 주며 이불 속에서 몸을 가까스로 일으킨다.

"그래, 알았다. 알았어."

세수를 하는 둥 마는 둥 주섬주섬 옷을 차려 입는데, 본준이와 미리 짜놓았는지 아내와 둘째 본경이까지 어느새 외출복 차림이다. 현관에는 아이들 간식 가방까지 놓여 있다.

"자, 출발!"

본준이의 힘찬 구령에 맞춰 차 시동을 건다. 목적지는 경인운하의 두물머리 생태공원. 지난해(2011년) 말 경인운하가 막 완공됐을 때도 우리 가족은 제방도로를 따라 운하를 한 바퀴 돌아본 일이 있다. 확 트인 서해 관문에 들어선 인천터미널의 규모에 압도됐던 기억이 난다. 터미널 북쪽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가득 쌓여 있고, 철강 부두와 해사(海沙) 부두에도 화물이 들어찬 모습이 장관이었다.

그때는 날씨가 추워 자동차로 한 바퀴 둘러보는 것에 만족해야 했는데, 이제 봄이 돼 날씨가 풀린 뒤로는 아이들이 "생태체험장에 가자" "마리나 파크에 가자" "전망대에 가자" 며 하루가 멀다 하고 졸라댔다. 오늘은 본준이가 좋아하는 물고기가 많은 두물머리 생태공원으로 목적지를 정했다.

두물머리 생태공원은 경인운하 수향8경 가운데 제6경이다. 경인운하에는 모두 8곳의 '전망 좋은 명소' 가 조성돼 있는데 제1경과 2경이 인천터미널 부근이고, 제3경은 수변도시로 정비된 시천교 주변, 제4경은 전망대와 인공폭포로 유명한 리버사이드 파크, 5경은 만경대, 6경은 두물머리 생태공원이다. 7경과 8경은 김포터미널과 인근 마리나 시설이다.

본경이는 경인운하를 처음 돌아볼 때 언덕 위에 있던 스카이 전망대에 필(feel)이 꽂혔다. 오늘도 전망대가 있는 리버사이드 파크를 가보고 싶어 하는 눈치다. 그렇지만 생태체험장을 고집하는 형의 위세에 눌렸는지 작은 목소리로 "아빠, 다음엔 꼭 전망대 갈 거지?" 라며 다짐을 요구한다. 귀여운 녀석!

"본준아, 전망대 들러서 생태체험장으로 갈까?"

"네, 좋아요."

본준이, 본경이 두 녀석이 입을 맞춰 한목소리로 대답한다. 그래, 오랜만의 나들이인데 그 정도 서비스를 못할까.

김포터미널에서 북측 제방도로로 방향을 잡았다. 두물머리 생태공원은 남측 제방도로에서 가깝지만, 스카이 전망대는 북측 제방도로 쪽에 있다.

김포터미널에는 중국으로 향하는 여객선에 오르는 관광객들의 긴 줄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에서 배를 타고 중국에 갈 수 있다니!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서울은 항구다' 는 말이 실감나는 장면이다.

10분쯤 달렸을까. 비행접시 모양의 전망대가 눈에 들어온다. 아찔한 높이에서 운하 위를 잠시 걸어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 리버사이드 파크 스카이 전망대는 미국 그랜드캐년의 전망대와 비슷하다. 전망대에 도착하자마자 올해 유치원에 갓 입학한 본경이가 팔짝팔짝 뛰며 형 뒤를 졸졸 따른다.

아내와 나는 전망대 옆 노천 수변카페에 앉아 샌드위치와 커피로 아침 겸 점심을 먹었다. 운하 협곡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상쾌하다.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긴 하지만 따스한 기



운도 느껴졌다.

오전 11시가 조금 지나자, 봄나들이를 나온 가족과 연인들이 속속 전망대 주변으로 모여든다. 가벼운 옷차림에서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진다.

"본준아, 생태공원에 가야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전망대 주변을 뛰노는 아이들을 불러 세웠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줄 햄버거를 샀다.

"생태공원으로 출발!"

이번엔 본경이가 출발 구령을 외친다. 전망대에 들르길 잘했다는 생각에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왔다.

생태공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참을 인천터미널 방향으로 운하를 더 따라 내려가다 시천교를 건넜다. 선착장과 수변 데크, 향유원과 바람개비 공원 등 워터프런트가 잘 갖춰진 시천교 주변은 벌써부터 행락객들로 북적였다. 경인운하 홍보관이 들어서 있고, 50m 높이의 기념탑까지 웅장하게 서 있어서 외국에 온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선착장에는 서해로 바다낚시를 가려는지 낚시 도구를 챙겨 요트에 오르는 무리들이 눈에 띈다.

"아빠, 다음에는 우리도 저기 가보자."

본준이는 벌써 다음 나들이 약속을 잡는다. 얼마 전 신문에 '경인운하가 완공된 이후 가장들이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에 동원되고 있다'는 기사가 났던데, 내 이야기가 될 줄이야….

시천교를 돌아 운하 남측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섰다. 북측 제방도로는 왕복 2차로인데 반해 남측 도로는 편도 2차로다. 그래서인지 차량 통행이 원활하다. 운하 수변도로에는 자전거를 타는 행렬도 보였다. 아마도 자전거 동호회에서 나온 모양이다. 예전에는 한강 둔치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지나는 행렬이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경인운하에서 더 많은 자전거 행렬을 만나게 된다. 한강보다 더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기 때문이겠지. 그뿐인가. 강바람에 바닷바람까지 맛볼 수 있지 않은가.

"아빠, 만경대다!"

운하 건너 만경대가 보인다. 대숲정원 등 각종 정원이 잘 갖춰진 데다 만경루가 설치돼 있어 운치를 더한다.

"아빠, 나중에 저기도 갈 거지?"

이번에는 본경이가 거든다.

"배다! 배!"

운하에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배가 마침 운하를 유유히 지나고 있다. 선미(船尾)에 중국어로 선명(船名)이 적혀 있는 것을 보니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선인 듯하다. 그 옆에는 하얀 요트 서너 대가 돛을 세우고 인천터미널을 향하고 있다. 한강을 출발한 요트가 김포터미널을 거쳐 오는 모양이다.

요트를 하루 빌리는 데는 50만원 정도 든다. 혼자 빌리는 건 좀 부담스러워 다음 달쯤 동생 가족들과 함께 빌려볼까 생각 중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어느새 두물머리 생태공원에 도착했다.

차를 세우자마자 토끼 같은 두 녀석은 어느새 깡충깡충 뛰면서 생태체험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강바람이 머리칼을 간질인다. '그래, 와보길 잘했다.' 집에 있어봤자 소파에 드러누워 TV 리모컨 돌리는 것 말고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은가.

"다음 놀토에는 테마공원이 있는 인천터미널을 다녀올까?"

잠자코 있던 아내도 벌써부터 다음 나들이를 예약하려는 모양이다. 오 마이 갓! G

글 · 구자홍 기자

정부 블로그에 170만 명 접속

찾아가는 정책정보 누리꾼과 소통하다

개설 6개월 만에 방문자 수 170만명 돌파, 누적 댓글 수 6000여 개, 스크랩 수 5000여 개, 다음이 선정한 '베스트 뉴스블로거'…. 이처럼 블로그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이다. 현재 다음(blog.daum.net/hellopolicy), 네이버(blog.naver.com/hellopolicy), 대한민국 정책포털(blog.korea.kr/hellopolicy) 등 3개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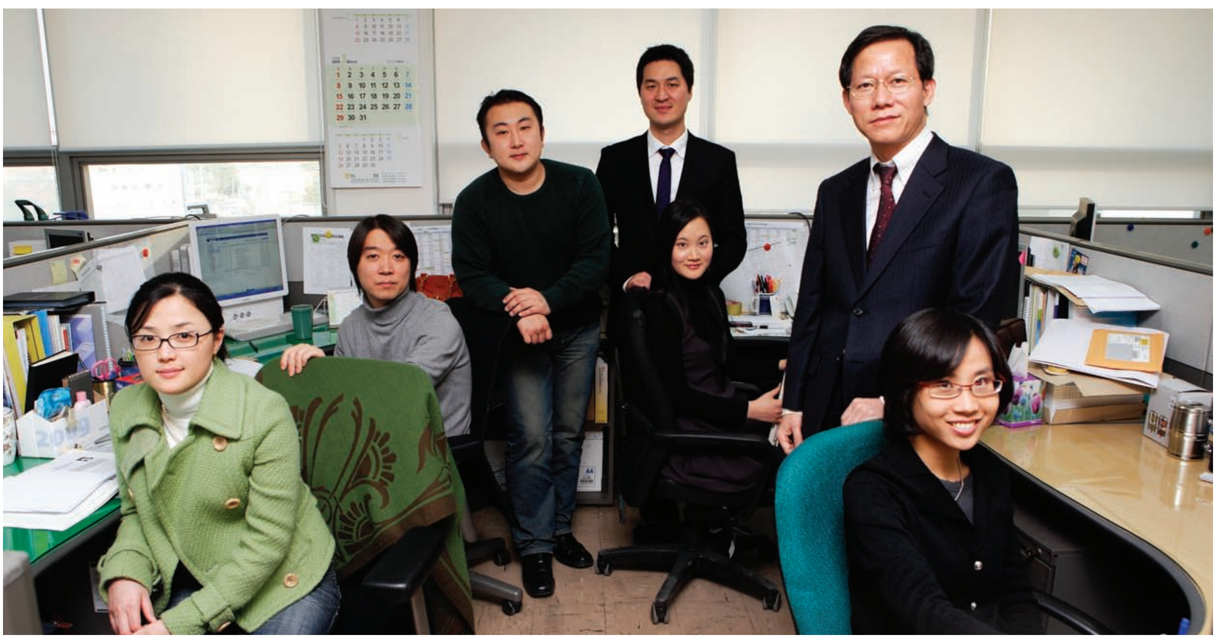
정책공감은 지난해 9월 1일 공식 오픈했다. 참여, 공유, 개방으로 대표되는 웹2.0 환경에서 자칫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정책정보를 친근하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국민의 이야기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즉, 누리꾼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블로그 세상으로 정부가 직접 찾아가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그동안 정책공감은 유가환급금, 연말정산,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청년취업 프로그램, 통신피해 예방법 등 정책정보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특히 누리꾼들의 관심과 눈길을 끌었던 것은 생활밀착형 정책들. 이는 정책공감이 방문자 수 100만명을 기념해 마련한 이벤트 '블로거들이 뽑은 정책공감 Best Post는?'의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상위에 오른 것은 '무료체험을 했다가 유료체험을 당하면?' '내 휴대전화도 복제당할 수 있다?' '건강 자가진단 해보기' '월세도 현금영수증 챙기자' 등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었다.

다음에 개설된 정책공감 블로그는 6000여 블로그 중 일간 1위를 기록한 적도 여러번이다. 지난해 12월 8일에 게재된 '벌점 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될 위기라면?'은 조회 수 4만8000여 건, 추천 146건, 댓글 60건, 스크랩 120건 등으로 다음 블로거뉴스 코너에서 베스트뉴스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1월 16일 게재된 '설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vs 대형마트 얼마나 차이 날까?' 역시 베스트뉴스를 기록했다.


'정책공감'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뉴미디어홍보과 직원들.

누리꾼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3주간 진행된 '대한민국 녹색 블로거를 찾습니다' 이벤트는 90여 명의 블로거 참가, 430여 건의 포스트 게재 등으로 정부가 진행한 블로그 이벤트로는 최대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또 올해 1월 14일부터 11일간 진행된 '까치 까치 설날은~ 정책공감과 이웃 맺고! 설 선물 받고!' 이벤트는 총 참여자가 747명에 이른다.

생활밀착형 정책 소식들 잇따라 베스트 뉴스 선정

정책공감은 정보 제공 외에도 주요 이슈나 쟁점에 대해 정부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대변인' 구실도 한다. 최근엔 행정인턴, 녹색뉴딜사업 등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에 대해 정부의 이야기를 정확히 알려 주목을 받았다.

정책공감 담당 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뉴미디어홍보과.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지만, 실제로 정책공감은 모든 부처의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다. 김유진 사무관은 "39개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블로그 세상이나 온라인 토론 공간에서 정책정보와 관련해 어떤 이슈가 있는지 늘 주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이템은 매주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생생한 정보 전달을 위해 현장 취재를 원칙으로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도 다양하게 활용한다. 또 읽는 사람의 흥미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재미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한다. 내부 인력 외에도 취재, 촬영, 디자인의 일정 부분은 외부 전문업체에게 맡긴다. 이렇게 완성돼 정책공감에 게재되는 콘텐츠는 하루 평균 2~3건.

한편 블로그를 통해 정책에 대한 누리꾼들의 질문이나 의견이 접수되면, 최대한 빨리 관련 부서에 연락해 답변을 받도록 조치한다. 또 부처 실무자끼리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취재한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도 한다.

올해 정책공감의 목표는 정성스러운 디지털 스킨십을 통한 소통강화다. 다음, 네이버, 대한민국 정책포털 등 각 포털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트랙백(track back·원격 댓글을 통해 본문과 관련된 콘텐츠를 링크하는 기능) 활동을 활발히 할 예정. 또한 정책에 관심있는 블로거를 먼저 찾아가 이웃을 맺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함께 누리꾼과 항상 대화하는 블로그가 되기 위해 단골 블로거와의 온오프 정기 미팅 실시, 소통형 위젯(widget·개인화된 웹 플랫폼)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의·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홍보과 02-3704-9794. G

글·이지은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모든 행정부처마다 블로그 통해 국민소통에 힘써

요즘 정부 부처 블로그가 인기다. 현재 39개 부처 가운데 31개 부처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4월 말까지 8개 부처의 블로그가 더 개설된다고 하니, 전 부처가 블로그를 갖게 된다. 그중 파워 블로거로 자리매김한 블로그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따스아리'(blog.daum.net/ mohwpr)가 대표적이다. '따뜻한 메아리'라는 뜻의 이 블로그는 매주 20만~30만명이 방문한다. 무가지 '메트로'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발표하는 '주간 인기 포스트'에 늘 소개될 정도. 현재 누적 방문자 수는 30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 전문가들의 건강 관련 기고문과 대학생 기자단이 직접 취재한 기사 등이 인기를 끈다.

국방부의 '동고동락'(mnd9090.tistory.com)은 남성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 군대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를 재미있게 풀어낸 웹툰이 특히 인기로,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는 145만명에 이른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새농이'(blog.daum.net/ maf2006)는 음식물에 민감한 주부들에게 인기가 좋다. '안전한 밥상 이야기' '먹을거리를 찾다' '요리해봅시다' 등이 주목받는 코너. 지난 1월 작성된 '내 아들이 갈 군부대 급식현장 미리 가보니' 글은 조회수가 무려 52만 번으로 누리꾼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이는 역대 정부 컨텐츠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이다. 새농이는 방문자 수 3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개인이 운영하는 '장태평의 새벽정담'(blog.naver. com/taepyong)도 인기 블로그다. 장 장관은 직접 방문한 누리꾼의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다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 번개 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블로그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다는 후문.

이처럼 정부 부처 블로그가 활성화된 까닭은 무엇일까. 예산과 인력이 풍부하지 못함에도, 꾸준한 세미나와 교육의 결과 공무원들의 뉴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담당자들의 연구와 노력도 한몫을 했다. 이렇다 보니 부처 간 선의의 경쟁도 치열하다. 또 서울, 인천,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블로그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모든 정부 부처의 블로그는 다음에 있는 정책공감에 들어가면 바로 방문할 수 있다. 메인화면 오른편에 있는 '즐겨찾기'의 '정부'를 클릭하면 각 부처 블로그가 링크돼 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새벽정담', 국방부의 '동고동락', 보건복지가족부의 '따스아리'(위에서부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홍보대사 장윤정

"범죄로 입은 마음의 상처 보듬고 경제적 고통 덜어드려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홍보대사 장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노래로 잠시나마 불안과 근심을 잊고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 하시던데요. 저 역시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에 언제나 신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범죄피해자들에게도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는 든든한 응원군이 있다는 사실을? 네, 바로 저 장윤정이 홍보대사로 있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그 주인공이랍니다.

의료·법률 지원하고 장례비·생계비 등 도와

지난해 9월 3일 출범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연합회랍니다. 범죄피해자는 누구냐고요?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를 말한답니다. 이건 다시 생각하면 우리 중 누구라도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더군요. 사실 저 역시 홍보대사를 맡기 전엔 잘 몰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재 전국에는 56개(각 지방검찰청에 1개씩)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고, 이 센터들의 연합사업을 하는 법인이 바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랍니다. 그렇다면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활동입니다. 우선 의료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적 지원' 이 있고요, 수사 및 배상처리 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의료·법률·경제적 지원 등을 한다.

"범죄 탓에 겪은 상처와 고통을 씻을 수 있도록,
상처 나고 멍든 가슴을 치료해주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줄 수 있도록 장윤정도 힘차게 응원할게요."

련 지원(신변보호 및 법정 동행) 등 피해자 가족이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로금, 장례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은 물론 범죄 때문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대신해 범죄현장 정리(청소)를 돕는 '사건현장 정리'도 있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범죄를 당한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접적이고도 효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면,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베이스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일명 '강호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죠? 그 전에는 '강남 논현동 고시원 방화사건' 등이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하기도 했고요.

이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각 센터를 상대로 모금활동을 벌여 관할 센터를 지원하는 등 센터의 연대 강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또 연합회 홈페이지를 활용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센터 정보공유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등 그야말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입니다.

이밖에도 학회 및 단체 등과 연계해 세미나를 열거나 캠페인을 벌이고,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조정, 벌과금 및 형벌부가금을 범죄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는 재정확충 방안 등 다양한 입법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법무부와 힘을 합쳐 각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사무국장, 간사) 및 위원, 자원봉사자 등 전문상담원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사와 연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우수 사례집 발간이나 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발간하는 것은 그 활동들의 하나랍니다.

또한 피해자가 대피할 수 있는 쉼터인 '피해자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1억 원씩 적립하고 있고요, 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과 보호소 운영은 물론 피해자 등의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 및 자활교육 알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관련 단체와도 연계해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요.

인권대회 통한 범죄피해자 권리향상에도 앞장

이렇듯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고요, 법무부와 협력해 전철 1, 3, 4호선에 4분짜리 홍보방송을 방영하고 있답니다. 이 홍보방송에는 저 장윤정을 비롯해서 개그맨 이휘재 씨, 탤런트 윤다훈 씨, 현영 씨 등이 출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이밖에도 인권대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매년 11월의 '피해자 인권주간'에 한국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건데요, 지난해 열린 제1회 인권대회에서는 '범죄피해자 권리'를 선언했답니다. 제2회 대회는 올해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범죄 탓에 겪은 상처와 고통을 씻을 수 있도록, 상처 나고 멍든 가슴을 치료해주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줄 수 있도록 저 장윤정도 힘차게 응원할게요. 파이팅!

전국범죄피해자 신고전화 1577-1295. G

정리 · 김성주 객원기자

무공해, 무연료에 건강은 만점

녹색혁명은 두 바퀴로 달린다

차량 증가로 환경오염, 기후변화,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 혼잡, 자동차 사고, 배기가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44조4000억원에 이를 만큼 도로교통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도로교통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전체의 78.3%에 달할 뿐 아니라 차량 운행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이로 말미암아 환경오염, 기후변화,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는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전국 곳곳을 자전거 길로 연결해 생태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덕분에 자전거가 국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마스터 플랜(Bicycle Master Plan), 프랑스의 자전거 무료대여 시스템(Velib), 독일의 자전거 도시(Cycle Friendly City) 등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이제 우리나라도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녹색교통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해졌다. 자전거는 녹색교통의 핵심 수단이고, 활용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더욱이 전국에 자전거 동호인이 300만 명에 이르고, 도심 내에서는 자전거가 자동차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자전거를 녹색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상징으로 육성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재 도로와 교통체계뿐 아니라 법과 제도적인 부분들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전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미약하다. 자전거 인프라 측면에서도 자동차도로 대비 자전거도로가 8.9%에 불과하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의 연계 체계도 확충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하고, 자전거 보급률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특히 2005년 자전거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에는 국가적 지원마저 미흡한 상황이다.


동아DB

서울 한강둔치의 자전거도로를 따라 출근하는 시민들.

2018년까지 자전거도로 3114km 구축

정부는 자전거를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으로 육성하고 전국을 자전거 생활권화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보급률을 확대해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현재 1.2% 수준에서 2012년까지 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자전거 중심의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국민의식 확산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의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권역이 자전거 이용에 적합하도록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등 자전거 시설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도로다이어트 등을 통한 자전거전용차로제를 도입해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자전거 신호등과 안전표지판 등을 도입해 통행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마간 도로통행 우선순위를 폐지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해 올해 상반기 중에 각 보험사에 자전거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해놓고 있다. 우선 도심지 자전거도로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대중교통 전용지역을 확대하고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한 녹색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 3114Km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파급효과가 큰 구간을 시범


동아DB

경남 창원시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점차 늘고 있다.

구간으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시범구간은 통학, 출퇴근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비무장지대(DMZ) 구간을 활용한 '평화 체험형', 관광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해안 관광형', 생활과 여가를 접목한 '생활 레저형',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갯벌 체험형' 등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국토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4대강 자전거도로 및 생활형 자전거도로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녹색개발의 취지에 맞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자전거 개발 등 산업 측면에서도 집중 육성

또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권역별 자전거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자전거 종합지원센터는 자전거 주차, 대여, 수리 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자전거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세계 자전거 시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생산규모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자전거 생산기반을 회복해 우리나라가 다시 자전거 생산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덕특구에 산학 연계 자전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자전거 산업에 자동차부품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또 세계 고부가가치 자전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전거 개발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첨단 기능을 장착한 정보기술(IT) 융합 지능형 자전거와 자전거용 내비게이션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세계 자전거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자전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 스스로 자전거를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자전거 타기 범국민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자전거 주간을 정해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는 자전거 축제를 개최하고 자전거 기증운동도 함께 전개해 전국적인 자전거 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자전거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된다. 자전거 동호회 등 일반 국민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전거 안전교육 의무화,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투르(Tour) 드 코리아 자전거 대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주축인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윤미경 사무관은 "현재 각 부처에서 기후변화,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교통체증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여기에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G

글 · 김지영 기자



보건연구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규제 개혁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59개 규제 개혁 추진

규제 없애면 국민건강 살고 9800억원 수익 늘어

#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는 주부 이미경 씨는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한의원에서 증류한약을 지어 먹인다. 증류한약은 한약 특유의 쓴맛과 냄새가 없어 아이가 잘 먹기 때문이다.

"어린이 시럽 감기약에 타르색소가 들어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뒤 증류한약으로 바꿨어요. 심하진 않지만 아이에게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데, 타르색소가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시럽 형태의 어린이 감기약은 알록달록한 색과 달콤한 과일향으로 거부감을 줄인다. 이 예쁜 색을 내는 식품 첨가물이 타르색소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 착색료의 하나로,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어진다.

아직까지 감기약에 포함된 타르색소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연구보고는 없다. 하지만 부모로서는 알레르기, 아토피, 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란 자체가 불안하다. 게다가 국내에는 무색소 어린이 감기약이 나와 있지 않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소비자의 선택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타르색소가 들어 있지 않은 감기약을 공급하고, 외부 포장에 무색소 제품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여드름 피부용 화장품이 없다. 여드름 치료는 의약품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드름용 화장품이라는 표시나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여드름이 있는 사람도 화장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에 맞는 화장품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드름이나 아크네(Acne · 여드름)라는 단어를 표기할 수 없으니까 아크네의 약자인 에이씨(AC)라 쓰고, 유분이 적다거나 피지를 조절한다거나 트러블을 잠재운다는 식으로 적당히 돌려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국화장품협회 장준기 팀장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비자에게 그대로 알릴 수 있도록 표현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게 화장품업계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화장품 표시와 광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는 화장품 표시 및 광고는 허용할 방침이다. 머지않아 '여드름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 또는 '여드름 피부에 자극이 덜한 화장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 팀장은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고,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59개 항목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무색소 어린이 감기약 공급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어린이 치약에는 불소 함량과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불소 성분을 함유한 치약을 어린이가 삼킬 경우 치아에 흰색이나 갈색 얼룩이 생기는 반상치(斑狀齒)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약갑이나 설명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큰 글씨와 알기 쉬운 용어로 표기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의약품 정보도 한곳으로 모아 의약품정보 포털을 만들 예정이다.

규제 준수 비용 年 1400억원 절감 효과

또 어린이 비만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에도 열량과 영양소 표기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해외여행을 할 때 의사의 처방전을 세관에 제출하면 평소 사용하던 진정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 기업 처지에서는 허가, 심사, 신고 등의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돼 규제 준수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고 시장 진입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하는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GMP) 평가 기간이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표준제조기준을 적용하는 일반 의약품과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전 GMP 평가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GMP 평가자료 제출이 면제되면 의약품 수출이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아DB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합리적인 규제 개혁으로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허가와 신고에 필요한 민원서류가 연 2만9000건 줄어들며, 제품 출시가 빨라져 업계 수익이 연 98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약품 공장을 이전할 때 생산과 동시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동시적 밸리데이션(Validation)을 허용하기로 했다. 밸리데이션이란 의약품의 제조공정, 방법, 기계설비 등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점을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의약품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은 사전 허가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외국 제조사에 대한 평가를 마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최초 수입 때 실시하던 검정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 기획정책팀 차태선 부장은 "행정처리 때문에 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단축되면 비용이 줄고 시장 진입도 빨라지므로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건산업 관련 기업의 시장 창출 및 매출 증대를 위해 화장품 표시와 광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안전성이 입증된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가능한 비타민, 무기질 원료를 확대함으로써 섭취량을 제한할 필요 없는 천연추출물 등을 일반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규제 개혁으로 규제 준수 비용이 연 1400억원 절감되고, 허가와 신고에 필요한 민원서류가 연 2만9000건 줄어들며, 제품 출시가 빨라져 업계 수익이 연 98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명경민 사무관은 "경기 침체로 개인과 기업이 모두 고통받고 있는 이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규제 개혁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아이 셋이면 내집 마련 걱정없다

3자녀 가구 주택대출 금리 낮추고 한도 높여

#1 "아이들이 커갈수록 사교육비가 늘어 남편 혼자 벌어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은 금융회사 차장으로 적지 않은 봉급을 받지만 네 명의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 2년마다 인상되는 전세금을 감당하기엔 부족합니다. 지금 상황으론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어요. 출산율이 떨어져 심각한 문제라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누가 아이를 더 낳으려 하겠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다자녀 가구 주택 마련에 대해 언급한 뒤 많은 대책들이 준비되고 있다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서울 강동구의 주부 민지수(40) 씨 · 아들 셋, 딸 하나인 다자녀 가구〉

#2 "아들만 둘이라 딸을 보고 싶어 아이를 하나 더 낳을까 하는 가장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사업(건설 부문)도 힘들어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자녀 가구의 대출한도를 늘린다는 소식을 듣고 어려운 와중에도 셋째를 가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100㎡ 규모의 내 집을 먼저 마련한다면 아이들 키우는 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아 앞으로 100년 후면 한국 인구가 2000만 명도 안 된다는데, 다자녀 무주택자를 위한 좀 더 다양한 정책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기태(37) 씨 · 딸 둘〉


동아DB

3자녀 이상 부양자는 주택 청약 때 부양가족 수에 높은 가점을 부여받아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자녀 수가 부의 척도다.' 몇 년 전부터 중년 서민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다. 아파트 면적도 아니고, 연봉도 아닌 자녀 수가 부의 척도가 됐다는 이 말에서 보듯,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더 낳으려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출산율이 세계 평균 2.69명이나 선진국 평균 1.59명보다 훨씬 낮은 1.19명(2003년 통계청 자료)인 우리나라에서 다자녀 가정은 '애국자'인 셈이다.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2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마련 지원대책을 직접 언급했다.

85㎡, 3억원 이하 주택에 1억5000만원까지 저리대출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마련 지원 내용'은 크게 특별분양, 청약가점, 국민주택기금 추가 대출 등 세 가지다.

특별분양은 전체 공급주택의 3% 범위 내에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우선 배정토록 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는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청약경쟁률이 치열할 경우 3자녀 가구에는 큰 수혜가 되는 부분이다. 최근 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된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도 3자녀 특별공급이 이뤄졌고 경쟁률이 2.2대 1을 기록했다.

청약가점에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3자녀 부양자는 청약가점제 가점요소 중 부양가족 수에 높은 가점을 부여받아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총 가점 84점 중 최대 35점(부양가족 6명)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가족은 부부를 포함해 5명이 되므로 25점의 배점을, 부모를 부양할 경우 총 가족 수는 7명이 돼 35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하는 제도다. 근로자서민 주택마련 구입자금 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



동아DB

최근 판교신도시에 공급된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에서 3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 2.2 대 1을 기록했다.

반적으로 한도가 1억원까지다. 그러나 3자녀 이상 가구는 5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3자녀 이상 부양자는 2000만원까지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율도 일반가구 5.2%보다 0.5%p 낮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나 3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한도가 1000만원 높아진다.

다자녀 가구에는 분양가 낮춰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그러나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정책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제외하곤 '당첨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집중돼 있어 서민 가정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특별지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 안광열 사무관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상할 수 있는 혜택으로, 대출 한도는 높이고 이자는 낮추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우선 주택 구입 때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을 현행보다 더 낮게 적용하고 대출 한도도 대폭 늘려주는 방안을 꼽고 있다. 또 이들의 주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특별분양 비율을 현재 3%에서 5~10% 정도로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전망이다.

분양가를 차별화해 다자녀 가구에는 싸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다자녀 가구에 공급되는 주택 비율만큼의 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상대적으로 분양가를 낮춰주는 방법이다. 또 공공기관이 신규 분양되는 주택의 일부를 우선 인수해 저렴한 가격으로 다자녀 가구에 되파는 방안도 하나의 가능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격을 달리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자녀 가구가 집을 분양받을 때 바우처(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주려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 등을 지급하면 다자녀 가구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내고 나머지만 부담하면 되는 방식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1600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출산율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청와대 주변 문화유적 ①

조선시대 일곱 모후 신위 모신 '七宮'

'지즉위진애 애즉위진간'(知則爲眞愛 愛則爲眞看 ·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된다).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 유한준이 당대의 수장가였던 김광국의 화첩 〈석농화원〉에 부친 발문으로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비결에 대해 내놓은 '모범 답안'이다.

일상생활에서 혹은 무언가 특별한 곳을 방문했을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풍광 속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문화유산의 유래나 의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면 그저 오래된 집이나 돌덩이, 나무 그 이상의 의미를 되새기지 못한 채 스쳐 지날 가능성이 높다.

경무대 터 앞의 주목 나이는 720세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반인들이 경내 관람을 위해 도는 코스 곳곳에는 유서 깊은 문화유적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사물들이 적지 않다.

춘추관 옆으로 나 있는 출입구를 통해 청와대 경내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되는 곳이 녹지원이다. 녹지원(綠地園)은 말 그대로 푸른 잔디가 깔끔하게 조성돼 있는 정원으로 청와대 개방 행사 때 종종 이용된다.

녹지원 곳곳에는 수백 년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여러 그루 자리 잡고 있다. 녹지원 뒤편에는 범상치 않아 보이는 나무가 서 있다. 높이가 17m에 달하고 수령이 160년 된 이 나무는 '반송'이다. 사방팔방으로 뻗은 가지들은 세계무대로 웅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반송 왼쪽에는 큰 키에 아름다운 가지를



영빈관 바로 옆에는 조선시대에 왕의 어머니가 된 일곱 후궁의 신위가 모셔진 칠궁이 있다.

여럿 뻗고 있는 수려한 나무가 있다. 회화나무인데 수령이 239년이나 됐다. 회화나무는 조선시대에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 선비들의 집에 많이 심었던 나무로 알려져 있다. '자손이 번성한다'고 하여 많이 심었다는 속설도 전해진다.

녹지원을 지나 관람로를 따라 조그마한 석교인 '용충교'를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녹지원 약수터'가 위치해 있다. 녹지원 약수는 서쪽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는 서출동류(西出東流)형의 '길수(吉水)'라고 한다. 청와대 경내 관람 안내를 맡고 있는 한 여경(女警)은 "약수도 물이 나오는 곳에서 바로 떠먹는 것보다는 돌로 만들어진 물길을 따라 내려가며 햇빛을 충분히 쬔 뒤에 떨어지는 낙숫물을 받아 마시는 것이 더 좋다"고 귀띔했다. 약수가 '음수(陰水)'이기 때문에 태양의 양기를 충분히 받은 물이 몸에 더 좋다는 설명이다.

본관으로 향하는 샛길을 따라 오르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조금 더 올라가면 옛 경무대 터가 나온다. 경무대 터 앞쪽에는 수령이 무려 720년 된 아름다운 주목이 서 있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간다'는 주목은 톱으로 나무를 켰을 때 그 속이 붉다고 해 '주목(朱木)'으로 불린다.

권력의 상징 경무대 터엔 절병통만 남아

경무대 터에는 옛 경무대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시돼 있는데, 경무대 터 중앙에 놓여 있는 호리병 모양의 석돌로 된 절병통이 인상적이다. 절병통이란 정자 등의 건물에서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고 때로는 지붕을 장식할 목적으로 지붕 꼭대기에 설치하는 항아리 모양의 기와이다. 때로는 돌을 다듬어 만들기도 한다. 이 절병통은 과거 경무대 출입구 지붕 끝에 있던 것인데, 경무대를 없애면서 기념으로 같은 높이, 같은 위치에 일부만 남겨 놓았다고 한다. 나머지 경무대 터는 흙으로 메워 동산처럼 꾸며 놓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총독 관저로 사용됐고,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는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기도 했던 경무대 터는 이젠 조그마한 절병통만이 남아 파란만장했던 20세기 초중반의 한국 현대사를 초라하게 웅변하고 있는 듯하다.

경무대 터에는 '천하제일복지(天下第一福地)'라는 글귀가 새겨진 돌이 눈에 띈다. 이 글귀는 경무대 터 뒤편에서 관저 공사를 할 때 산에 있던 바위에 새겨져 있던 것을 축소해 새겨 넣은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람객들은 경무대 터에서 내려와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영빈관을 거쳐 시화문으로 나가 청와대와 벽을 마주하고 있는 칠궁(七宮)으로 향하게 된다.

칠궁은 조선시대에 왕의 어머니가 된 일곱 후궁의 신위가 모셔진 곳이다. 원래 이곳에는 영조를 낳은 어머니인 숙빈 최씨의 사당인 숙빈묘가 영조 원년인 1725년에 건립됐고, 1744년에 이름을 육상묘로 고쳤다고 한다. 이후 1753년에 육상묘를 육상궁으로 개칭했다고 한다.

칠궁 안내를 맡고 있는 정현숙 칠궁관리소장은 "후궁의 신위를 모신 곳을 경복궁 가까이에 모셔놓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궁'으로 높여 칭하게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칠궁에는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의 사당인 육상궁을 비롯해, 영조의 후궁이자 추존왕 진종의 생모인 정빈 이씨의 사당 '연호궁', 선조의 후궁이자 추존왕 원종의 생모인 인빈 김씨의 사당 '저경궁', 숙종의 후궁이자 경종의 생모인 희빈 장씨의 사당 '대빈궁',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의 사당 '선희궁',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의 사당 '경우궁',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생모인 순헌귀비 엄씨의 사당인 '덕안궁' 등 모두 7개의 궁이 자리 잡고 있다. 칠궁 가운데 선희궁과 경우궁, 육상궁과 연호궁은 하나의 사당에 모셔져 있다. G

글 · 구자홍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관저로 사용됐고,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는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기도 했던 경무대 터는 이젠 조그마한 첨탑만이 남아 파란만장했던 20세기 초중반의 한국 현대사를 초라하게 웅변하고 있는 듯하다.







1 녹지원 약수는 서출동류(西出東流)형의 길수(吉水)라고 한다.

2 경무대 터에는 관저 공사를 할 때 산에 있던 바위에 새겨져 있던 것을 축소해 새겨 넣은 '천하제일복지(天下第一福地)'라는 글귀가 있다.

3 회화나무는 조선시대에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 선비들의 집에 많이 심었던 나무로 알려져 있다.

도로 위 파수꾼 고속도로 순찰대 24시

추격전의 아찔함도, 운전자 욕설도 국민 안전 위해 참지요



고속도로 순찰대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를 담당한다.

햇살이 나른한 금요일 오후, 승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한다. 시속 140km 이상의 속도로 3개 차로를 넘나드는 곡예운전. 이를 발견한 고속도로 순찰대 김정보(43) 경사가 사이렌을 울리며 뒤쫓기 시작한다.

"○○○○차량, 갓길에 멈춰 서세요."

경고안내를 반복했음에도 문제의 승용차는 이를 무시한 채 한층 속력을 높이며 내달렸다. 김 경사는 본부에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10여 분의 추격 끝에 다른 고속도로 순찰대와 공조해 폭주하던 승용차를 세울 수 있었다.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에게서 역한 본드 냄새가 풍겼다. 그는 환각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비틀거렸고, 거주지를 묻는 김 경사의 질문에 횡설수설했다. 조수석에는 '돼지본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환각상태에서 과속을 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고속도로에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속도로 순찰대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지난해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총 3608건. 409명이 사망했고 9333명이 부상했다. 이런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고속도로 순찰대의 가장 큰 임무다.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 순찰대' 하면 과속 혹은 터널사고, 갓길통행 단속 등을 떠올리지만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과속·추월 난무… 목숨 위협받는 경우 많아

전국 고속도로를 24시간 지키는 순찰대원은 748명. 본부는 서울 톨게이트에 있다. 이곳에서 전국 고속도로 상황을 폐쇄회로 TV를 통해 확인하고 각 지구대에서 올라온 긴급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지시한다. 사령탑인 셈이다. 지구대는 서울·경기 등 11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귀한 생명을 사고로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철저한 단속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단속을 강화해서라도 사고는 막아야 한다는 게 고속도로

> 고속도로 순찰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업무에 임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일이니 순찰대원들의 업무에 좀 더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순찰대 본부장 이정열 경감의 신조다. 그래서 이 경감은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음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현장을 누빈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1일부터 3월 8일까지 고속도로상의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292건이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568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1월 35명에서 올 1월 26명으로 줄었다. 단속을 강화하면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긴급 환자 이송 등으로 생명 구했을 때 보람 커

봄바람을 타고 꽃향내가 북상하는 요즘에는 나들이 차량을 단속하느라 대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나이트클럽처럼 사이키 조명을 설치하는 등 실내를 불법으로 개조한 관광버스들이 많기 때문이다. 버스를 개조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주가무를 즐기다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광버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버스 안에서의 놀이문화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은 과속과 추월이 난무하는 고속도로에서 일하다 보니 목숨까지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과속으로 달아나는 차량들을 상대해야 해 카레이서 못지않은 운전 실력을 자랑하는 김 경사지만, 위법 차량을 추격할 때면 두려움이 앞선다고 한다. 얼마 전에도 동료 대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뒤쫓다 크게 다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겁이 납니다. 제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저뿐 아니라 모든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이 다 그럴 겁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도 무사히'라고 주문을 욉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막내딸은 기도 대상 1순위가 항상 접니다. 다른 집과 달리 저희 집은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죠(웃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이지만 돌아오는 것은 격려와 칭찬보다 거친 반응이 더 많다. 단속에 적발된 사람 중에는 욕설은 기본이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고속도로 순찰 차량에 매일 몸을 싣는 이유는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당시 영동선 인천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산모가 갑자기 산통을 시작했다는 연락이 지구대로 접수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산모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옮기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원주에 있는 한 병원까지 빠르게 호위하라는 지시를 받고 산모와 동행했는데, 솔직히 고속도로 위에서 제가 아이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웃음). 다행히 병원에 빨리 도착했고 산모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죠. 아기를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다 붉어졌습니다."(안준권 경위)

안준권 경위는 국민에게 한 가지 바람을 피력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업무에 임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일이니 순찰대원들의 업무에 좀 더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G

글 · 안유리나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일한다.

메르세데스벤츠 디자이너 윤일헌

13억짜리 슈퍼카를 그리다 자신의 꿈을 그리다



현재 BMW와 GM, 혼다, 크라이슬러 등 해외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한국 출신 디자이너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유학파다. 그러나 윤일헌 씨는 보기 드문 '순수 국내파' 디자이너다. 그의 도전과 성공 스토리를 들어본다.

"2005년 처음 유럽에 건너갔을 때 한국인으로서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도 있었지만, 솔직히 그보다는 '내가 과연 이 유명한 디자이너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못생긴 차가 옆을 지나가자 현지인들이 '꼭 한국차 같다'며 낄낄대는 걸 듣게 됐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때 '한국인인 내가 너희들이 자랑하는 벤츠 최고의 디자이너가 돼서 반드시 이 수모를 갚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야 속이 좀 풀리는 기분입니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영국 맥라렌이 지난 1월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선보인 SLR 시리즈의 최종판 'SLR 스털링 모스'는 한국인의 작품이다. 75대 한정 생산으로 초(超)경량 소재인 카본 파이버로 만든 차체에 650마력의 V8 슈퍼차저를 얹었고 최고 시속은 350㎞. 이 75만 유로(13억 5000만 원)짜리 '괴물'을 탄생시킨 것은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에 근무 중인 디자이너 윤일헌(35) 씨의 손이었다.

"워낙 유명한 차라서 부담이 컸습니다. 기존의 SLR를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디자인해야 하는 작업이었는데, '절대 평범해서는 안 된다'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를 괴롭혔어요."

스털링 모스는 현지 전문가들로부터 오리지널 300SLR의 이미지와 현대적 감각이 적절한 조화를 이룬 디자인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해외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한국 출신 디자이너들이 활동하고 있다. BMW와 GM, 혼다, 크라이슬러 등이 모두 한국인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회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유학파다. 반면 윤 씨는 보기 드문 '순수 국내파'



윤일헌 제공

"최근 세계 유명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꺼번에 BMW의 디자인을 따라했던 적이 있었다.
디자이너 크리스 뱅글이
자동차 디자인의 트렌드를 만들어낸 셈인데,
나도 그런 디자인 트렌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윤일헌 제공

윤일헌 씨가 디자인한 차량들. 올해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선보인 'SLR 스털링 모스(왼쪽)'와 2005년 도쿄 모터쇼에 전시된 수소차 'F600 하이지니어스'.

디자이너다.

윤 씨는 홍익대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3년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포드 등 해외 유명 자동차 메이커들에 우편으로 지원서와 함께 직접 만든 포트폴리오를 보냈다. 윤 씨는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기'였지만, 그만큼 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만 해도 국산차는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값을 낮추려면 성능보다는 디자인 비용을 줄이기가 더 쉽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능력을 100%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주변에서는 "꿈도 야무지다"며 비웃는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얼마 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메르세데스벤츠가 덜컥 윤 씨의 입사를 통보해온 것이다. 윤 씨가 처음 일하게 된 곳은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어드밴스드 디자인 스튜디오. 모터쇼 전시를 전제로 제작되는 미래형 차량인 '컨셉트카'를 주로 만드는 곳이었다. 입사 6개월 만에 단독으로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컨셉트카를 디자인하라는 프로젝트가 주어졌다. 윤 씨는 "경력과 상관없이 기회를 주는 점이 참 좋았다"고 말했다.

해외유학 경험 없는 순수 국내파… 전문가들 호평

2005년 10월 도쿄 모터쇼에서 그의 첫 작품인 F600 하이지니어스(Hygenius)가 전시됐다. 하이지니어스는 '수소(Hydrogen)'와 '천재(Genius)'를 결합한 단어다. 윤 씨의 작품을 본 회사는 그를 곧장 독일 본사로 데려왔다. 이적 후 SLK, GL, S-Class 등 몇몇 메이저 자동차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윤 씨는 2007년 '자동차 디자이너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 스포츠카 SLR 시리즈의 최종판 스털링 모스의 외형 디자인을 맡게 됐다.

1955년 영국의 전설적인 카레이서 스털링 모스는 메르세데스벤츠 300SLR를 몰고 이탈리아에서 벌어지는 도시 간 레이스 '미레밀리아'에서 우승했는데,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를 기리기 위해 SLR 시리즈를 제작해오고 있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윤 씨에게 디자인을 맡긴 차는 카레이서의 이름을 붙인 이 시리즈의 완결판이었다.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된 윤 씨는 2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영국과 독일을 오가며 엔지니어들과 스털링 모스의 틀을 조율해 나갔다. 아이디어가 막힐 때면 수시로 오리지널 300SLR가 전시된 '벤츠 박물관'으로 달려갔다.

작업은 원작에 가까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 디자인을 먼저 한 뒤 기능을 거기에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조등 옆의 공기 흡입구와 차체 옆으로 튀어나온 가스 배출구 등 기능상 불필요한 부분까지 모두 재현했다. 윤 씨는 "엔지니어들이 내 디자인이 좋다며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전시된 스털링 모스는 그렇게 완성됐다.

그는 한국 출신 디자이너에 대한 유럽 자동차 업계의 평가에 대해 "감각적인 면과 생산성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다"며 "사전 스케치를 제출할 때 다른 디자이너들은 2장 정도 내지만, 한국인들은 6, 7장씩 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세계 유명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꺼번에 BMW의 디자인을 따라했던 적이 있었다. BMW의 디자이너 크리스 뱅글이 자동차 디자인의 트렌드를 만들어낸 셈인데, 나도 그런 디자인 트렌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걸 이루고 나면 뭘 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윤 씨는 "외국 대학에서는 학기 중에 기업체 인턴 과정을 의무화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를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기회가 된다면 실무경험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 대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싶다"고 말했다. G

글 · 장상진 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KTV 특집토론’
정책 홍보 vs 날 선 비판 ‘소통 접점 찾기’

‘KTV 특집토론’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KTV의 간판 토론 프로그램이다. 정책 책임자와 국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더 나은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KTV가 정책방송이긴 하지만 일방적인 정책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국민의 날카로운 비판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 2월 24일 밤 9시 50분. ‘KTV 특집토론’ 생방송을 준비 중인 KTV 한국정책방송 스튜디오에는 시종일관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날 토론의 주제는 ‘대한민국 경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였다.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 노동부 송영중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가족부 손건익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정부 각 부처의 경제정책 담당자들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민 패널 10명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30대 후반 직장인, “뛰는 물가에 장 보기가 겁난다”는 30대 주부, “정규직이 되고 싶다”는 20대 인턴사원, “학자금 대출 때문에 고생한다”는 20대 초반 대학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는 50대 중소기업 대표, “다시 일하고 싶다”는 명예퇴직자 등 출연한 패널들은 경기침체 등으로 겪는 국민들의 갖가지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었다.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 또한 날카로웠다. 정책 담당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답변할 정도였다. 또 바라보는 시각차에 따른 논쟁도 이어졌다. 그렇게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국민’과 ‘정부’는 열띤 토론을 펼쳤다.

KTV 특집토론은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과 날카로운 비판도 고스란히 전달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길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정책방송이긴 하지만 일방적인 정책 홍보만 하지는 않겠다는 것. 주로 정책 관련 주제를 다루고,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부 담당자가 토론의 한 축을 이룬다는 점이 여타 토론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특징이다. 또 패널로 대표되는 국민과의 토론을 통해 각종 정책의 대안과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담당인 이병용 PD는 “기존의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상반된 견해를 가진 패널들이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만을 강조하며 각을 세우는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재미는 있을지언정 토



보건복지가족부 손건익 사회복지정책실장,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 국민 대표 패널, 노동부 송영중 기획조정실장. (왼쪽부터 시계방향)

론으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며 "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 설사 정부와 상반된 의견이라도 진솔하게 전하면서 궁극적으로 좀 더 나은 대안과 개선책을 모색하자는 게 이 프로그램의 의의"라고 말했다. 이 PD는 또 "토론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궁금해하는 바를 설명해주며, 설사 생각이 다른 국민도 설득해야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이다.

KTV 특집토론은 정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획돼 진행됐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에는 '시위문화, 이대론 안 된다'라는 주제로, 지난해 말에는 송년특집 '2008 이명박 정부 1년을 말한다'를, 올해 초에는 신년기획 '2009년 한국경제를 말한다'를 방송했다.

앞으로 4대강 정비사업, 미디어산업 발전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된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G

글 · 이지은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KTV 특집토론' 사회자 안인해 고려대 교수

"국민 패널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것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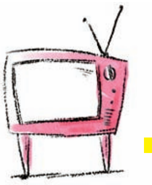
KTV 특집토론 '대한민국 경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의 사회를 맡은 고려대 안인해 교수는 국제정치학계와 외교가를 누비는 여성 정치학자다. 각종 포럼은 물론 MBC '생방송, 이슈&이슈', YTN '집중조명' 등 토론 프로그램 진행을 도맡아왔다. 그는 현 정부 1주년을 맞은 지금이 경제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제 전공이 정치학이라서 그런지, 경제문제를 정치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또 정부 관계자와 국민 패널 간 토론이라는 형태가 매우 건설적이라고 보았죠. 그래서 제안이 들어온 순간,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웃음)."

안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국민 패널들이 준비해온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국민 패널들이 방송에 처음 출연에 긴장할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떨지도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더군요.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정치학자인 제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안 교수는 "출범 1주년을 맞은 현 정부가 국민과 더 잘 소통하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KTV 특집토론이 국민과 소통하는 좋은 수단이 되도록 제작진이 더욱 노력해달라"는 바람을 밝혔다.



볼 만한 프로그램

경제투데이 | 매주 월~금요일 17:00~17:30



봄 개편을 맞아 새롭게 신설된 경제 정책 및 정보 프로그램. 경제 관련 주요 정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국내외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엔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 성과, 경제위기 극복 방안 등에 대해 다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내 마음의 고백 | 매주 금요일 20:40~21:20



아름다운 사람들의 행복한 고백을 담은 휴먼 토크 프로그램으로 3월 13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사회 저명인사는 물론 평범한 이웃들의 진심어린 고백을 통해 평소 쉽게 말할 수 없었던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려 한다. 당시 사연을 감성적으로 재연한 드라마도 재미있는 볼거리다. 진행자는 문학평론가인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 박 교수의 진솔한 입담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따뜻한 고백은 용서와 화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희망을 깨닫게 해준다.

시사파일 뷰 | 매주 목요일 23:00~23:30



사회 이슈와 정책 현안을 다양한 현장 취재를 통해 다각적으로 심층 분석하는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3월 5일 첫방송을 시작했다.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정확한 논거와 올바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시청자의 편에서 이슈를 바라보고 여론 추이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사회 이슈와 정책을 바라보고 어떻게 언론보도를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동아DB

정부의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양대의 한 연구실험실.

기초연구사업 취업문 활짝 청년인턴 3600명 모집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초석이 되는 기초연구사업 분야에서도 대규모 청년인턴 채용이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청년실업 해소와 기초연구사업 분야에 대한 인적 투자 방안의 하나로 대학 졸업(2년제 포함) 5년 이내인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초연구사업 분야에서 일할 청년인턴 3600명을 모집한다. 이 중 2700명은 올 상반기 중에 채용하고, 나머지 900명은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이다.

기초연구사업 분야 인턴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인 전국 80여 개 대학에서 각 대학별로 상시 서류를 접수해 모집하며,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한다. 인턴 채용과 채용학교 배정 등에 있어서는 인턴 지원자의 전공과 거주지 등이 고려된다.

인턴 채용 기간은 기초연구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6~10개월이며, 인턴들의 월 보수는 110만원 수준(주 40시간 근무, 4대 보험료 포함)이다.

기초연구사업 분야 인턴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 측이 학교 여건과 연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이규만 사무관은 "우리 부의 기초연구사업은 매달 새로 발주되며, 신규 연구가 보통 5월과 9월에 많이 발주되기 때문에 실제로 오는 5월에 가장 많은 2000명가량이 선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구사업 분야 인턴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각 대학의 홈페이지나 산학협력단실에 문의하면 된다.

이들 대학 외에 한국과학재단의 인턴중계마당(http://job.kosef.re.kr)을 통해서도 기초연구사업 인턴을 모집 중인 대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취업과 관련한 정부 홈페이지에서도 기초연구사업 인턴 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02-2100-6828 G

기관	홈페이지	게재창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채용공고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채용정보란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www.work.go.kr	분야별 채용정보란
한국학술진흥재단	www.krf.or.kr	사업안내란

글 · 박경아 기자

양도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 확대

미분양 아파트 시장에도 봄바람

□분양 아파트에 눈을 돌려라. 내년 2월 11일까지 신규 취득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내 전용면적 149㎡ 이하 미분양 아파트를 5년 안에 팔 때 양도소득세 60%를 감면받게 된다.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이 5년 동안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미분양주택 해소 등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3월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와 같은 감세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월 9일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 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하이며,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 660㎡ 이하, 연면적 149㎡ 이하이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은 신규 아파트나 신축 주택 모두 면적 제한이 없다.

현행법상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강화 · 옹진군 제외) 및 경기도의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등 14개 시를 말한다.

양도세 감면·면제 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은 2009년 2월 12일 현재 건설회사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이며, 2월 12일 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을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 주택을 해당 시공사와 계약하여 취득하거나 미분양 리츠·펀드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을 해당 미분양 리츠·펀드와 계약하여 취득한 경우도 양도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1일 이전 신규 아파트나 신축 주택 계약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구입했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양도세 감면·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미분양 주택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확인받은 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총 12만여 가구로, 이 중 양도세가 100% 면제되는 비과밀억제권역 물량이 9만여 가구에 달한다.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최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돼 최대 수혜지로 떠올랐으며 용인 성복지구, 김포 신곡지구 등도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문의·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4111. G

글 · 박경아 기자



연합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혜택지역인 김포 한강신도시의 한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형.



탄소배출권 알면 블루오션이 보인다

〈탄소가 돈이다〉
기타무라 케이 지음 · 황조희 옮김
1만2000원 · 도요새

프랑스에 비가 적게 오면 어떻게 될까?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한다. 교토의정서가 체결된 지 12년째 접어들면서 탄소배출권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이제 낯설지 않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배출권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프랑스의 기후와 무슨 관계인지 구체적 관심은 희박해지는 게 사실이다.

〈탄소가 돈이다〉는 탄소배출권이 상품이 되어 거래되는 메커니즘을 추적하면서, 환경문제를 돈벌이와 연계한 그 철학과 효용성을 분석한 '탄소배출권 거래의 교과서'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와 관련, 선진 각국에는 감축 목표가 주어져 있다. 하지만 목표치에 일거에 도달할 수 없는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사들인다. 이미 상당한 수요가 형성된 이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캡&트레이드) 시장을 둘러싼 백태가 흥미롭게 소개된다.

배출권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형성된다. 복잡한 거래 메커니즘 때문에 시장엔 가짜 배출권이 난무하기도 한다. 수요가 늘 공급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속성상 선도계약, 복수계약이 횡행하는가 하면 최악의 가격폭등 시나리오도 예고된다.

이미 배출권은 기온, 강수량, 석유가격 등에 연동해 가격이 오르내리고, 20여 개 헤지펀드사가 눈독을 들이는 금융상품이 됐다. 각국 기후와 탄소 배출량, 화석연료와 배출량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모르고 이 시장에 들어섰다간 눈 뜨고 코 베이기 십상이다.

배출권이 이렇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다. 우리에겐 아직 감축 의무가 없기 때문. 하지만 교토의정서 제2차 의무이행 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엔 우리나라 역시 대상에 포함될 게 거의 확실하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하고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시킨 것도 탄소 배출량 감축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다급한 인식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보다 앞서 감축 의무국이 된 일본 사례를 통해 배출권 거래의 특징과 명암 등을 소상히 훑고 있다. 환경훼손이 없는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시대를 대비해야 할 모든 이들이 꼭 읽어볼 만한 입문서다. G

글 · 손정숙 객원기자



동아DB

2007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열린 환경재단의 'STOP CO_2' 조형물 제막식.

가슴 설레는 나라 미래기획위원회 지음 / 9800원 · 한스미디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나온 현 정부의 국정철학 및 국정방향 소개서다. '최고상상책임자'를 자임하는 대통령의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위원회가 알기 쉽게 풀어썼다.

1부에서는 그간 보여준 한민족의 저력을 통해 우리의 가능성을 재확인한다.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변화와 창의, 상상, 도전, 개방, 통합과 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2부는 메가트렌드시대의 현 정부 미래비전과 국정철학을 살폈다.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인 '창조적 실용주의'의 의미와 목적도 고찰한다.

3부에서는 꿈과 희망을 성취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본다. 현 정부 5대 국정지표와 100대 국정과제가 소상히 소개되고 있다. 시장 규제완화와 지원, 녹색성장, 복지정책, 교육문제와 인재양성 등의 화두가 여기서 다뤄진다. 4부는 이런 실행 과제 완수 뒤의 미래, 즉 2020년 한국의 모습을 담고 있다. 녹색성장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책은 재생지를 사용해 만들었다.

토요일엔 '뮤지엄' 간다!

2009 토요미술강좌

일시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소강당 & 전시실 & 야외조각장
문의 02-2188-6068. www.moca.go.kr

미술을 공부하고 싶다면 토요일 오전, 경기 과천시의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나들이를 가자. 국립현대미술관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둘째 주와 국경일, 명절은 제외)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9 토요미술강좌'를 진행한다.

'토요미술강좌'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올해는 미술관 전시와 연계된 강좌로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 최신 현대미술 경향을 알려주는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도 눈에 띈다. 미술관 관람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접수로 진행하며, 6월까지 상반기 일정은 아래와 같다.



토요미술강좌에 참여한 미술관 관람객들.

날짜	대주제	소주제	연계 전시
3월 3.7	한국 근현대 미술사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젊은 미술-젊은 모색'	젊은 모색
3.21		작품으로 보는 한국미술사(1960~2000)	한국미술 1960~1980 한국미술 1980~2000
3.28		작품으로 보는 한국미술사(1910~1960)	한국미술 1910~2000
4월 4.4	미술시장	작품의 생산과 유통-미술시장	신 소장품전
4.18		재테크? 우리는 미(美)테크!	
4.25		미술경매란?	
5월 5.16	가족과 함께 하는 현대미술	인도 현대미술 따라하기	인도 현대미술전
5.23		디지털 카메라로 현대미술을 이야기하다	야외조각장
5.30		가족과 함께 다중대화-콜라주 체험	램프코어 다중 대화
6월 6.20	만화	미술과 만화	만화전
6.27		작가가 읽어주는 우리 만화 1	
7.4		작가가 읽어주는 우리 만화 2	

꽃피는 봄이 오면

일시 4월 18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또는 5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 대강당
문의 02-2077-9000(안내 0번). www.museum.go.kr

나른한 봄날의 토요일 오후,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무료로 문화행사를 즐기고 싶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가 보자. 국립중앙박물관은 3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문화행사 '꽃피는 봄이 오면'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크게 '봄맞이 영화 상영회'와 '토요 가족음악회'로 나뉜다. '봄맞이 영화 상영회'는 '마지막 황제' 등 관객들이 친근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토요 가족음악회'에서는 퓨전 국악오케스트라의 연주회, 대중가수 및 팝그룹의 콘서트, 그림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G

정리 · 이지은 기자



3월 28일 토요 가족음악회에서는 퓨전 국악오케스트라 '여민'의 연주를 선보인다.

날짜	시간	장소	봄맞이 영화 상영회	토요 가족음악회
3.21	오후 3시	대강당	내셔널 트레져 : 비밀의 책	-
3.28	오후 5시	열린마당	-	퓨전 국악오케스트라 '여민'
4.4	오후 3시	대강당	마지막 황제	-
	오후 5시	열린마당	-	그림 콘서트 '드로잉쇼' 팝그룹 '타임'
4.11	오후 3시	대강당	아마데우스	-
	오후 5시	열린마당	-	대중가수 'BMK' 인디가수 '앨리스 블루'
4.18	오후 3시	대강당	페르세폴리스	-

물을 보내자! 사랑을 나누자!
사랑의 물 보내기 캠페인

생명水를 선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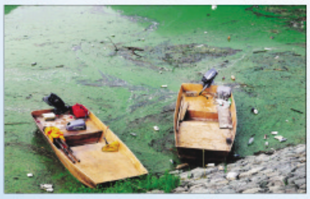


고통받는 이웃에게 물을 선물하는 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가뭄피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고향에 계신 내 가족, 내 이웃의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당장 나부터 물절약을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가뭄은 수질이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가뭄극복으로 깨끗한 자연을 유지해야 합니다.



21세기는 물의 가치가 국가경쟁력입니다.
수자원 확보로 물이 풍부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생활 및 공업, 농업 용수가 부족합니다.
유수지 등을 개발하여 물부족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 K water